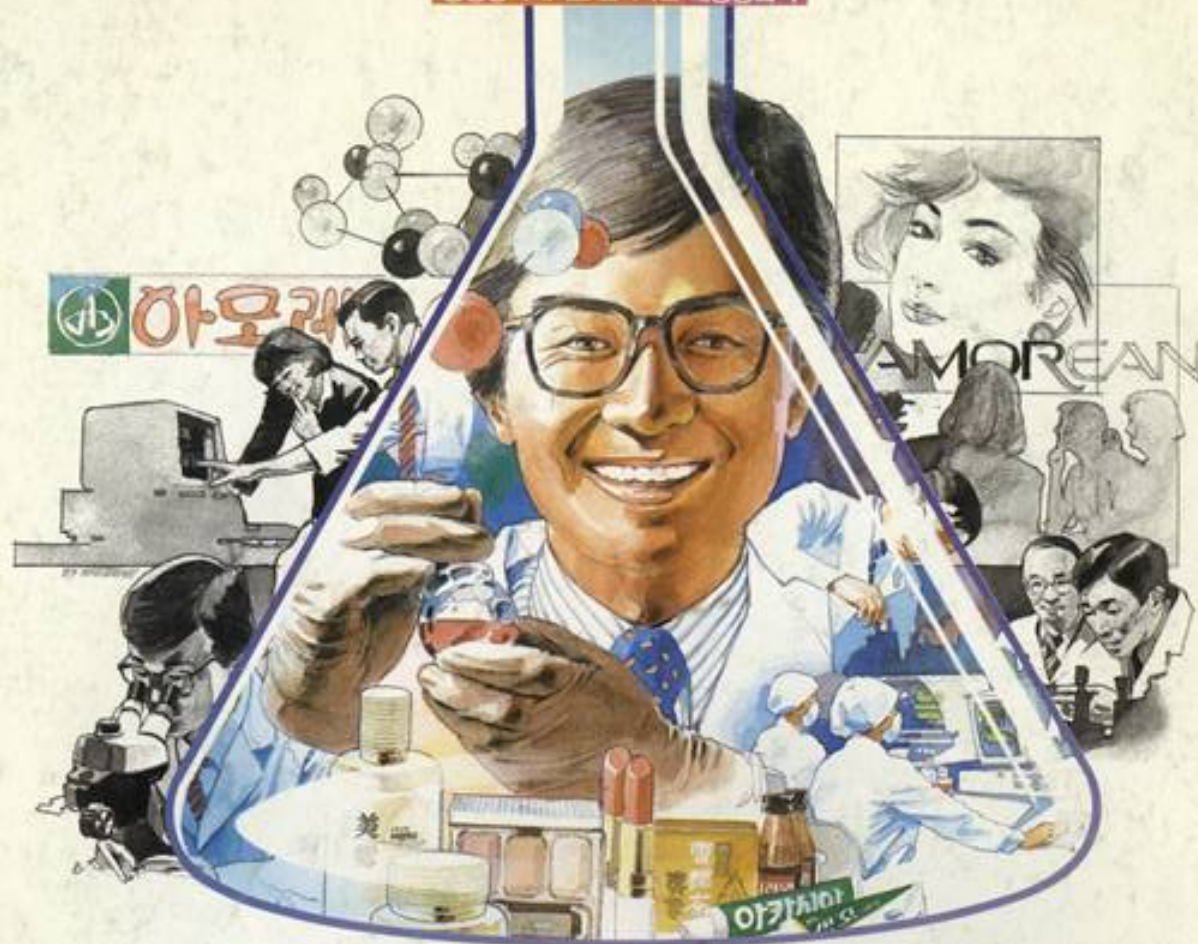




한 사람의 아름다움을 위해 244명의 연구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아름다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태평양화학

인류의 아름다움, 사회의 아름다움을 위한 태평양화학의 노력은 90년대에도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첨단의 신소재와 생명공학을 응용한 심도있는 피부과학으로 피부에 자극을 주지않는 저자극성 화장품 뿐 아니라 각자 피부 특성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성분의 화장품,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가정생활용품.

식품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제품을 연구·개발해왔던 태평양화학 244명의 연구원들—지금 이 순간에도 보다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중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태평양화학이 새롭게 펼쳐갈 90년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을 앞당겨 실현시킬 것입니다.

여성

월간여성 6월호(통권 275호) / 1990년 6월 10일
(매월 10일) 발행 / 1964년 6월 13일 등록(서) 라-7
1965년 2월 25일 제3종 우편물(나)인가
(우편번호 140-013)

사단
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

특집 퇴폐문화 추방 캠페인





●드롭 카이저
스킨 200ml 1,150원 7,800원
●드롭 카이저
아프리카 150ml 7,800원
●드롭 카이저
스킨 150ml 7,800원
●드롭 카이저
스킨 150ml 10,000원

생활의 분위기가 그남자를 말해준다-카이저

자신도 모르게 하나하나 바뀌어가는
생활의 분위기.
그것이 한 사람의 남자를 완성시켜 간다.
은은한 향취로 느끼는 완숙의 남성미-
남성화장품 드롭 카이저

DEBON
KAISER



●드롭 카이저 아프리카 150ml 7,800원 ●드롭 카이저 스킨 200ml 1,150원 7,800원
●드롭 카이저 스킨 150ml 7,800원 ●드롭 카이저 아프리카 150ml 7,800원
●드롭 카이저 스킨 150ml 7,800원



월간 여성

1990년 6월호
통권 275호

목 적 본회는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 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4 **女聲 / 백정란**
오늘을 생각한다

특집 / 퇴폐문화 추방 캠페인

6 **특집 / 황필호**
망국방인 퇴폐문화 추방과 시민의 책임

10 **특집 / 권용철**
음란출판물의 현황과 대책

13 **특집**
퇴폐문화 추방 결의문 · 건의문

14 **매스컴에 비친 여성 / 매스컴 모니터회**
광고의 선정성 시장 인쇄

16 **여성계 원로 초대석 ⑤**
조기홍 선생님

18 **소비자 모니터 교육 / 김천주**
소비자 모니터의 역할과 올바른 태도

소비자 모니터 교육



19 **소비자 모니터 교육 / 최열**
복색운동과 환경보존

20 **소비자 모니터 교육 / 안기화**
쓰레기 문제의 현황과 대책

21 **소비자 모니터 교육 / 유봉현**
사회조사방법

22 **여성전문직 ⑧ / 안운정**
패션 디자이너

24 **여성논단 / 박정호**
가정간호사의 개악

27 **이달의 여성계 동향 / 홍은희**



30 **여성공무원, 교위직 진출 늘어 / 송영주**
3급 이상 일반직 13명

32 **한국의 여성노동운동 ⑤ / 박은식**
5.16이후부터 유신시절까지 I

36 **여성문화 / 박금옥**
연극 「굿나잇 마더」

38 **협의회 소식**

39 **우리들의 공장**

45 **주소록**

오늘을 생각한다

백정란 (전문직업여성들을 위한 국언명 회장)



1919년 3.1운동 직후에 조직되었던 애국부인회의 취지서에는 『고어에 가 로되 나라 사랑하기를 내 집 사랑하듯 하라 하였거니와, 내 집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집은 완전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이 제 나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찌 제 나라를 보존 못한 것을 아무 리 愚夫愚婦라 할 지라도 알 것이다.

아! 우리 부인들은 국민의 한 구성 분자다. 빼앗긴 인권을 찾고, 빼앗긴 국권을 회복할 최대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 부인들에게는 오로지 전진함만 있을 뿐이요, 추호의 후퇴는 용서할 수 없다. 이때에 다만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부인들은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 용기를 분발하고, 이상을 높이어서, 애 국심을 상통함으로써 공고한 단결을 도모하려고 본 애국 부인회를 조직하 는 바이니, 국민성을 다시 각오하여 일 제히 함께 찬동하여 주기를 천만 희망 하는 바이다.』라고 적혀 있다.

내용도 감동적이지만 그때 회원들은 말뿐 아니라 실제로 군자금을 모아 임 시정부에 보냈으며 결국 그 사실이 탄 로되어 간부 20여명은 처벌을 받고 투 옥되기까지 하였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국민으로서 자각과 의무를 깨닫고 국가의 운명이 바로 나 자신에게도 책 임이 있다고 느끼며, 어떻게 애국할 것인가에 대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변 화를 위한 집단적 행동을 취하려고 하

는가?

오히려 보다 나은 지위를 얻기 위해 힘, 명예, 부를 소유하려고 많은 사람 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물론 힘을 소유하겠다는 본능은 이 해할 수 있다. 부와 힘을 지닐 때 중 요한 사람과 사귄 수도 있고 유명해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힘에 대한 추구는 틀 림없이 반대세력을 형성하게 되며 갈 등을 가져 오기 때문에 악일 수도 있고 파괴적이 될 수도 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 자기 생 각에 박수갈채를 안보내주는 사람을 미 워하고, 자기 피를 피울 때 동참하지 않 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범자를 만 들려 하며 결코 안될 때는 중상 모략 하여 따돌리지 않는가? 그럴 때 상처 입은 사람은 복수하려는 본능적인 생 존의 반응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현명한 마음, 전리를 아는 깨어있는 마음은 되갚을 감정을 갖지 않는다.

덕이 있거나 용서를 지녀서가 아니 라 되갚는 것이 어려서고 뜻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며 우리의 욕구는 번 너와 비참함과 전쟁을 낳을 뿐임을 알 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국민의 윤리와 도덕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할 때이며 산업화 과정에서 얻은 물질만능의 사조, 극단 의 이기주의, 권력남용에 따른 부패와

불신 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 야 한다. 그리고 전사회에 급급해서 길흉사에 쓰여지는 점점 높아지는 꽃 장식을 보며 부끄러워 해야 하며 책임 을 느껴야 한다.

자신을 잃고 죽어가면서도 의식조차 못하는 이 부조리의 현상 속에서 언제 까지 관망할 것인가?

종교계의 한 지도자는 "남성위주의 오늘 이 사회는 인간상실을 가져왔다. 여성은 모성에 통하고 모성은 생명을 주는 자요, 생명의 원천이 되기 때문 에 죽어가는 인간성을 여성들이 구제 해 줄 것을 바란다"고 호소하며 여성 의 역할을 강조한 글을 읽은 적이 있 다.

운동은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해 능 동적으로 조직화하여 행동할 때 성공 할 수도 있다. 각계에서 일고있는 '윤 리실천운동', '바른살 실천운동' 등의 움직임은 두손들어 찬사를 보낼 일이 다.

여성단체는 각기 특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우리의 학식과 능력과 재물로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자.

곰곰히 생각하고

방향을 정하고

일들을 조망할 조용한 시간을 얼마 간 갖는다면 우리 여성들은 분명히 후 세들이 살기좋은 아름다운 나라를 만 드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



특집

퇴폐문화 추방 캠페인



황필호 (동국대학교수 · 종교철학 · 여성학)

망국병인 퇴폐문화 추방과 시민의 책임

일부의 사람들은 요즘의 퇴폐문화가 극대화되면 자연히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쾌락과 폭력은 제자리걸음을 하지 않고 계속 그 강도를 심화시킨다.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이라는 독특한 구조로 현대문명을 비판한 종교학자 엘리야데(Mircea Eliade)는 신화의 진실성과 역사의 허위성을 지적한 일이 있다. 신화를 믿고 살던 고대인들이 오히려 성스럽게 살았으며 신화를 배척하고 역사를 숭배하는 현대인들이 반대로 더욱 속되게 살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고대인이라고 해서 모두 성스러운 삶을 영위한 것은 아니며, 현대인들이 모두 속된 삶을 영위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하여 그는 완전히 성스러운 인간이나 완전히 속된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사회의 돌아가는 꼴을 보면 속(俗)이 극치에 달했던 소문과 고모라를 연상시킬 정도이다. 우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경제위기설”에도 불구하고 대포집, 족발집, 선물집, 포장마차, 경양식, 갈비집, 극장식 레스토랑, 가라오케, 룸살롱으로 대표되는 향락산업이 날로 번창하고 있다. 그리하여 서울의 새로운 환락가로 등장한 영동이나 이태원엘 가면 라스베이거스를 능가할 정도이

다. 또한 예로잡지, 음탕한 전자오락, 빗기기로 돈을 벌려는 영화, 서민의 위화감만 조장하는 연속극, 포르노로 대표되는 음란문화는 청소년에게까지 아무런 여과정정이 없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도 땅투기에 맛을 들인 부모님들은 자녀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이른바 8학군으로만 몰려서 실제로는 돈벌이를 교육이란 이름으로 미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I

그러면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퇴폐문화의 온상이 되었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단계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 사회 전체가 “보이지 않는 것”은 체제놓고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있다. 우정, 의리, 사랑, 정, 절개와 같이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무시하고 쾌락, 돈, 명예, 권력과 같이 보이는 가치들만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요즘엔 후자만 있으면 전자를 획득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구호는 “나도

하루 아침에 돈을 벌어서 홍청망청 쓸 수 있다.”는 개념과 동일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돈을 벌어도 벽돌을 쌓듯이 차근차근히가 아니라 호박이 넝쿨째로 떨어지는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즉석주의, 한탕주의, 결과제일주의가 초래하는 홍청망청은 그냥 홍청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망청으로 끝나게 마련이다.

둘째, 그러면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퇴폐적으로 되었는가?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사상적 이유가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대신에 오히려 국민을 실험용 모르모트로 취급하거나 국민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서민의 친구가 되어야 할 은행은 계속해서 “대형사고”를 일으키고, 백년대계의 기간이어야 할 교육기관이 오히려 학생들의 소외감을 조장하고, 국민단합의 원동력이어야 할 종교단체가 오히려 국민의 조소의 대상

이 되고, 서민의 땅을 앗아가고, 조령모개의 물가정책은 한 치도 앞을 볼 수 없는 안개정국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잇단 부정사태와 속임수는 국민에게 지독한 불신감을 조장시켜서 모든 일을 타인이나 공공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혹은 가족끼리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심어 주었다.

특히 정당과 정부는 술선수범해서 모범으로 다스리기 보다는 모든 것을 법, 억압, 공권력에 의하여 다스려왔다. 국민을 신뢰하기 보다는 선도의 대상, 재력의 대상, 다스림의 대상으로 간주해왔다. 민심(民心)이 천심(天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칼 야스퍼스의 「소크라테스, 불타, 공자, 예수」의 일절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법은 통치의 수단이다. 그러나 법은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 뿐이다. 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모범이다. 법으로 다스리는 국민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처벌을 피하려고 하지만, 모범으로 다스리는 국민은 항상 수치의 개념을 잃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법치만능주의로 처리하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이미 무엇인가 잘못된 점이 있다는 증거이다. 공자가 소송사건에 있어서 남보다 훌륭하지는 못해도, 그 송사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데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셋째, 그러면 왜 사회의 공공기관은 이렇게 타락했는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 기관을 움직이는 지도층 인사의 부정부패에 있다. 기관은 개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기관 자체는 본

질적으로 중립적이다. 다만 그 기관을 설치, 운영, 관리, 감시하는 지도자들의 타락에 의해서만 그 기관은 타락할 수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게 된다. 말로는 가족계획을 물 마시듯이 외치면서도 축첩을 하고 있는 일부의 유명인사, 정화를 슬로건으로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호화주택과 땅투기에 여념이 없는 경제인, 신뢰와 자유를 밥먹듯이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이익에 의하여 이합집산하는 정치인, 자유를 가르치면서도 민주화의 큰 물결에 역행하는 일부 교수, 성실을 강조하면서도 돈벌이라면 가파 식품까지 팔 수 있는 제조업자와 장사꾼, 자식에게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면서도 향락만을 추구하거나 명청히 텔레비전에만 매달려 있는 주부, 이런 사람들이 상존하는 한 퇴폐문화는 더욱 번창하게 될 것이다.

II

여기서 어떤 사람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향락문화가 왜 나쁘다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내가 번 돈을 내가 쓰는데 왜 말이 많으냐?”고 대들 수도 있으며, “자본주의란 능력과 노력에 따라 대가를 받고 그 대가로 얻은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체제가 아니냐?”고 큰소리 칠지도 모른다. 여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답변이 있다.

첫째, 쾌락은 영원히 충족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고 더욱 갈증을 느끼는 경우와 다름이 없다. 왜? 왜 이번에 만나서 이성은 영원히 나를 만족시켜 줄 것

이라는 “혹시나”의 기대는 언제나 “역시나”의 실망으로 끝나는가? 그 이유는 내가 추구하는 욕망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충족된 욕망보다 더욱 큰 욕망이 생기기 때문이다. 돈을 벌면 벌수록 더욱 큰 욕망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쾌락은 제거하기 보다는 더욱 큰 욕망을 부채질할 뿐이다.

둘째, 모든 사람은 서로 상충되는 욕망(Conflicting desire)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 가지가 충족되면 다른 것이 희생당하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결혼한 남성(혹은 여성)은 가정에 충실하고픈 욕망과 가정을 훌쩍 떠나서 집사와 같이 살려는 욕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한 쪽이 충족되면 필수로 다른 쪽이 허전하게 느낀다. 천신만고 끝에 성공한 사람이 갑자기 삶에 회의를 느껴 자살까지 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셋째, 정신적인 행복과는 달리 육체적인 쾌락은 공유(公有)할 수가 없다.

내가 앉은 의자는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없으며, 내가 마시는 술은 다른 사람의 입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인간의 공동소유의 가장 높은 단계인 섹스까지도 종종 쌍방통행이 안되고 일방통행으로 끝나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넷째, 물론 쾌락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다만 그 육체적인 쾌락이 정신적인 쾌락을 완전히 도의화하고 추구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는 성서의 가르침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한다.

III

그러면 퇴폐문화의 특성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그것을 망국병이라고까지 부르는가?

첫째, 일부의 사람들은 요즘의 퇴폐문화가 극대화되면 자연히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절대로 이런 일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쾌락과 폭력은 제자리걸음을 하지 않고 계속 그 강도(強度)를 심화시킨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쾌락이나 폭력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자, 여기에 어느 사람이 한 사람을 살인한 폭력을 그린 책이 있다고 하자. 계속 한 사람만 살인하면 곧 실증을 느낀다.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두 사람을 한번에 살인하고, 그 다음에는 열 사람을 살인해야 된다. 그래야 스펀이 지속된다.

포르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반라의 여인상을 보고도 굉장히 흥분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전라의 여인상을 보고 싶고, 시간이 더욱 지나면 더욱 선정적으로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의 흥분이 지속될 수 없다. 향락문화가 끝없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은 마치 수영을 하지 못하는 소년이 장마비에 넘치는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가 자신도 모르게 점점 깊이 떠내려 가게 되는 경우와 닮았다.

둘째, 향락퇴폐문화가 관을 치는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타인을 자신의 향락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리하여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아니라 돈과 돈의 만남, 육체와 육체의 만남, 돈과 육체의 만남이 성행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들의 만남은 "나와 너"

의 만남이 아니라 "나와 그것"의 만남이 되고, 우리들 대부분의 만남(meeting)은 어긋난 만남(Mismatching)이 된다. 여성해방론자들은 여성을 성의 대상(Sex Object)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Love Object)으로 취급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셋째, 진정한 만남이 없는 사회는 신뢰의 사회가 아니라 불신의 사회를 만든다. 뽕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을 정도의 지독한 불신의 사회가 된다. 그리하여 "만인은 만인의 적"이 된다.

넷째, 그래서 사람들은 전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미로(迷路)에 빠지게 된다. 물론 인간이란 원래 불확실성의 존재임으로 미래를 정확히 예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3년 열심히 공부하면 졸업을 하고, 10년 열심히 일하면 내집을 장만하고, 20년 열심히 살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전망을 전혀 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성

(Unpredictability)의 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겠는가? 남은 길은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와 "케 세라 세라"가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국민과 국가는 미래가 없게 된다.

IV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망국병인 퇴폐문화를 추방할 수 있는가? 아니, 우리는 과연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가?

언뜻 보기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정적인 듯 보인다. 정치인, 경제인, 사회의 지도층인사, 종교인, 문화에 종사하는 창작인들이 전부 타락되어 있는 마당에 힘없고 배없는 소시민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역시 사회의 큰 물결은 어느 개인도 역류(逆流)시킬 수 없지 않을까? 그것은 돌로 바위치기와 다름이 없지 않은가? 이 질문들에 대하여 나는 두가지를 언급하겠다.

첫째, 정치를 잘못해서 국민이 고생을 하느냐 혹은 국민의 정치의식이 낮아서 정치를 잘못하느냐는 문제는 당과 당간의 문제와 같이 쉽게 답변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미 지적했듯이, 현재의 퇴폐문화의 주범은 정치인과 경제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이런 퇴폐문화를 조장하도록 방치한 것은 바로 우리 시민들의 책임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찌기 공자는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 책임을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과 남에게서 찾는 사람의 차이로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 퇴폐문화의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다. 내가 직접 참여한 공범자가 아니면 그것을 방조한 공범자가 아닐 수 없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망국병의 책임을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가져야 한다.

둘째, 그러나 우리들의 퇴폐문화 추방운동은 단순한 개인의식적인 차원에 머물지 말고 단체적으로 발전하여 법률과 구조속에 나타난 모순의 타파로 연결되어야 한다. 개인의 변화없는 단체의 변화는 공염불로 끝날 수 밖에 없으며, 구조적인 모순의 혁파없는 개인의 의식화는 정말 개인주의로 끝나기 마련이다. 오늘 결의문과 건의문을 채택하고 가두 캠페인을 벌이는 행사를 펼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셋째, 백보를 양보해서, 퇴폐문화 추방 운동이 개인으로는 불가능한 운동이라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해서 포기할 수 있겠는가. 이 땅이야말로 우리가 태어나고 다시 돌아갈 영원회귀의 본향(本郷)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신성한 임무를 포기할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는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포기할 수 없는 일도 있다. 그리고 이 운동이야말로 우리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비록 몸부림치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우리들의 피부색깔과 같이 결코 떨쳐버릴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무료 공립학교의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이상은 건국 일백년이 지나도록 실현되지 않았다. 통일된 감독기구도

없었으며, 학교에는 아직도 계급의식과 신분의식이 있었으며, 많은 학교건물은 비가 새어서 1년에 몇 달만 열었을 정도였다. 이 때 메사추세츠 주의 호레이스 만이라는 사람이 처음 생긴 교육위원회장이 되면서, 미국의 참담한 교육 현실을 자세히 조사하며 매년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민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여러분은 가축을 기르는 데는 극성을 떨면서도 자녀를 기르는 법은 왜 배우지 않습니까?"

결국 그의 조그만 목소리로 미국의 교육은 차츰 개선되기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류를 위해 무엇인가 승리를 얻을 때까지는 죽는 것을 부끄러워하라!"

우리에게는 세가지 길이 있다.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절된 시민의 길, 머리로만 생각하는 관념적인 시민의 길, 몸으로 실천하는 시민의 길이 있다. 우리는 그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실존적인 갈림길에 있다.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역사에서 영원히 잊혀진 사람이 될수도 있고 영원한 증인으로 남을 수도 있다. ◆

(주)

- 1) 황필호, "미르키아 엘리야데의 생애와 사상", 「사랑은 결투가 아니다」, 자유문화사, 1990, p. 266
- 2) 황필호, 「살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자유문화사, 1990, p. 133
- 3) 같은 책, pp. 140~142
- 4) 김재순, 「반 논 뜨고 꿈꾸는 사람」, 샘터, 1990, p. 203
- 5) 황필호, "세 여자: 민주시민으로서의 여성의 역할", 「남자의 눈물, 여자의 웃음」, 샘터사, 1990, p. 163.





권용철 (한국언론윤리위원회 심의부장)

음란출판물의 현황과 대책

음란출판물이 범람하고 있는 원인은 우리 사회 전반의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소비문화 추구에 있다. 사회적 기풍이 전전하고 바람직한 성문화가 정착되어 있으면 음란 출판물이 유통될 수가 없는 것이다. 출판의 자유를 악용한 일부 출판인들의 무분별한 영리추구도 그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출판의 자유에는 사회적 책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데도 일부 출판인들은 물질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이를 외면하고 음란도서를 대량 발행하고 있는 것이다.

1. 서언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음란 출판물에는 도서류, 잡지류, 만화류 등이 있다. 이들 도서는 6.29선언 이후 출판등록이 자유화되면서 급격히 증가하여 총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내용 또한 수사를 동원하여 정사기교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여체를 선정적으로 표현한 사진을 다수 게재하고 있는 등 극히 음란한 실정이다.

음란출판물의 대량 발행으로 인하여 특히 우려되는 것은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YMCA가 89년 시행한 청소년의 불량출판물 접촉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중고생의 82%가 외설물을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8년의 24.5%에 비할 때 3.3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근래 들어 미성년자들의 성폭행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도 외설적인 비디오를 비롯한 다른 요인도 없지 않겠지만 이들 음란출판물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음란출판물이 범람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의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소비문화 추구에 그 원인이 있다. 사회적 기풍이 건전하고 바람직한 성문화가 정착되어 있으면 음란 출판물이 유통될 수가 없는 것이다. 출판의 자유를 악용한 일부 출판인들의 무분별한 영리추구도 그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출판의 자유에는 사회적 책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데도 일부 출판인들은 물질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이를 외면하고 음란도서를 대량 발행하고 있는 것이다.

2. 현황

(1) 도서

도서류에는 남녀간의 육체관계를 저속한 표현으로 외설스럽게 묘사한 소설, 카마스트라, 소녀경 등 인도나 중국의 정사기교를 소개한 성기법서, 음란한 페드벤이나 여인의 나체를 담은 사진집, 남녀간의 정사행위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만화 등이 있다.

1) 제재결정 현황

연도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4	계
종수	77	35	97	78	65	43	70	22	87	20	8	602

80년에서 90년 4월까지 본위원회로부터 제재 결정을 받은 음란도서는 모두 602종이며, 82년이 97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88년으로 87종이다. 가장 적은 해는 20종인 89년이다.

이처럼 해마다 편차가 비교적 심한 것은 출판인들이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 음란도서를 적게 발행하고, 완화되면 다시 많이 출판하기 때문이다.

2) 유통경로

음란도서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기차역 등지의 가판대와 만화 대본업소, 우편·전화망, 서점 등을 통하여 유통되고 있다.

가판용 도서는 출판사의 소재지, 대표, 전화번호 등 등록사항이 확실치 않은 무등록 출판사가 대부분이며, 종로 5가 또는 청계천 7, 8가 소재 총판에서 전국적으로 은밀하게 유통시키고 있는데, 주로 군인, 공원, 학생, 유흥업소 종업원 등이 구매하고 있다.

대본업소용 도서는 대부분 만화 출

판사에서 발행하여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만화 총판을 통하여 유통시키고 있고, 우편·전화망은 출판사가 주간잡지, 주간신문 등 대중지에 도서 광고를 게재한 후 독자들로부터 전화 주문을 받아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으며, 서점망은 일반 도서와 마찬가지로 "전국서적상조합연합회" 등의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다.

3) 내용

먼저 판매 장소에 따른 도서의 내용을 보면, 가판용 도서의 경우, 표지가 전라 또는 반라의 지나치게 선정적인 여인 사진이 게재되어 있고, 간지 또한 음란한 자태의 정사장면이나 유방·국소 부위 등이 노출된 포르노성 사진이 다수 게재되어 있다. 제호도 "뜨거운 여자", "불타는 여자", "사모님, 제비 한마리 키우세요" 등 외설스럽고 저속하다.

만화 대본업소용 도서는 5~10권의 시리즈물로, 폭력장면이 반복될 뿐만 아니라 남녀간의 육체관계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내용도 상당부분 게재하고 있는데, 과거 발간된 무협소설류가 일부 유통되고 있을 뿐 신간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편·전화망을 이용하여 판매되는 도서는 가판용 도서에 비해 지나치게 노골적인 표현은 없으나, 외설적인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광고 내용 사례를 보면 "제발! 이대로 멈추지 말아주세요, 90% 오르가즘 소설, 사랑과 야망" "그녀와의 24시, 삼천오백원으로 즐기십시오, 지금 그녀가 침대에 앉았음, KO시킬 당신이 필요함" 운운 등, 청소년의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저속한 대사와 함께 출판사

의 전화번호를 명기하고 있다.

서점 진열용 도서는 외국인이 쓴 "로맨스 시리즈", "할리퀸 시리즈" 등 청소년의 애정 문제를 다룬 번역물이 대부분인데, 정사 장면을 묘사한 내용이 다소 있으나, 경미한 편이다. 성교육 도서임을 빙자하여 구체적인 성체위를 그림을 통해 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성관계 기법을 필요 이상 상세히 묘사한 도서도 수 종 있다.

다음으로 유형별 내용을 살펴보면, 소설류의 경우, 오랄섹스·혼음 등 음탕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나, 혼외정사·매춘 등 무분별하고 비도덕적인 불륜행위, 사제간 또는 근친간의 패륜적 행위, 미성년자의 성체행 등을 저속한 표현으로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다.

사진집의 내용은 전라로 앉거나 서서 손으로 국부만 살짝 가린 자태, 상의를 벗은 채 체모가 그대로 비치는

망사 스타킹만 신거나 팬티를 반쯤 내린 모습, 반라 여인이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 남녀가 혼음하는 장면 등 전면에 걸쳐 선정적이고 도발적인 여인들의 누드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성기법서는 남녀의 성기교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거나, 정상위, 좌위, 여성상위, 후배위 등 다양한 성체위 사진과 함께, 입술이나 혀로 상대방의 성기를 애무하거나 자위하는 방법을 비롯한 육체관계 기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2) 잡지

잡지는 6.29 이전 2,204종이던 것이 90년 4월 현재 4,600여 종으로 배정도나 증가하였다. 대중오락지 또한 5종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52종으로 9배 정도나 신장되었다. 잡지는 대중오락지



●특집●

퇴폐문화 추방캠페인



에서 선정적인 내용을 주로 게재하고 있는데, 전체 52종 중 주간지가 9종, 월간지가 43종을 차지하고 있다.

1) 대중오락지 발행 실태

34개 출판사에서 52종을 발간하고 있는데, 한 출판사에서 4개의 잡지를 내는 곳이 3개사이며, 3개는 3개사, 2개는 3개사, 1개는 25개사이다.

2) 유통경로

외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대중오락지는 주로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기차역 등 인구 이동이 많은 지역의 가판대를 통하여 판매되고 있으며, 서점을 통한 경우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3) 내용

잡지에서는 사진, 기사, 만화 등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의 경우는 전라에 가까운 여인이 측면으로 서 있는 자세에서 둔부가 강조된 장면, 원피스를 입은 채 모로 엎드려 있는 여인의 치마 밑으로 남

자 손을 넣어 애무하는 장면, 전라의 여인이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 있는 자세에서 체모가 노출되어 있는 장면 등 전라 또는 반라 여인의 가슴, 둔부, 국소 부위를 강조한 선정적인 자세를 담고 있거나, 여성상위, 남성상위, 전과위 등 다양한 체위로 정사를 벌이는 국내외 영화 스틸을 게재하고 있다. 만화는 남녀 정사 장면을 외설적인 대사와 함께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기사는 외국의 성기법서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성감을 고조시키는 성체위와 기교를 음란한 표현으로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4) 제재결정 현황

연도	86	87	88	89	90.4
건수	267	237	549	441	159

86년에서 90년 4월까지 본위원회로부터 제재 결정을 받은 건수는 모두 1,653건이며, 연도별로 보면, 88년이 549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441건인 89년, 267건인 86년, 237건인 87

년의 순으로 되어 있다. 88년의 제재 결정건수가 전년도보다 두 배 가량 많은 것은 정기간행물 등록 자유화로 인한 대중오락지의 증가와 출판인들이 사회 분위기의 이완을 틈타 외설적인 내용을 대량 게재한데 그 원인이 있다.

또한 89년의 결정건수가 88년보다 감소된 것은 "주간 부산" "주간국제" 등 일부 음란성이 심한 주간지들이 폐간되었기 때문이다.

3. 대책

(1) 직접적인 방법

- 1)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강화
- 2) 음란 도서 출판사에 자제 공한 수시 발송
- 3)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 4) 관계당국의 행정 및 법적 조치 강화
- 5) 학교·출판인·사회단체·학부모 등이 연계한 음란출판물 일소 캠페인 지속적 전개
- 6)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외설도서 추방 여론 조성

(2) 간접적인 방법

- 1) 입시제도의 개선으로 독서기회 확대
- 2) 다양한 양서 발간
- 3) 독서 시설의 확장
- 4) 가정에서의 독서 지도 강화
- 5) 새로운 수업 방법의 모색
- 6) 기업의 도서 출판 권장
- 7) 독서의 생활화

●특집●

퇴폐문화 추방캠페인

결의문

퇴폐문화 추방 캠페인에 참여한 우리 여성일동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퇴폐향락문화를 추방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1. 주택가, 학교주변의 향락업소 추방운동을 각지역 주민단위로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 음란 영화포스터, 저질주간지, 음란비디오, 만화 등의 제작 및 유통에 관심을 갖고 학교어머니회 등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추방운동을 펴나갈 것을 결의한다.
3. 우리 가족부터 향락업소의 출입을 삼가게 하고 가족 중심의 건전한 놀이 문화를 형성, 확산시키는데 힘을 결의한다.

1990. 6. 1.

퇴폐문화 추방 캠페인 참석자 일동

건의문

퇴폐문화 추방 캠페인에 참여한 우리 여성 일동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퇴폐향락문화를 추방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정부 및 사회 각계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정부는 향락업소가 주택가, 학교주변까지 침투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업소허가 기준과 허용지역 등을 엄격히 제한하라.
2. 정부는 향락업소의 번창을 막기 위하여 특별소비세율을 더욱 높이고 유통업소에 대한 은행대출을 중단하는 한편, 탈세를 자행하는 업소를 엄중 단속하라.
3. 정부는 퇴폐문화의 온상이 되고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음란잡지, 비디오, 만화 등을 근절시키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엄격히 적용, 시행하라.
4. 정부는 건전한 시민문화의 육성을 위해 시민체육을 활성화하고 문화공간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마련하라.
5. 기업은 접대비를 줄이고 향락문화를 척결하라.
6. 남성들은 향락업소의 이용이 퇴폐문화를 번창하게 하는 요인임을 깨닫고 출입을 삼가하라.

1990. 6. 1.

퇴폐문화 추방 캠페인 참석자 일동

본회 매스컴 모니터회는 5월10일, 24일 각각 모임을 갖고 그간 모니터링한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모임에서는 TV나 잡지에서 광고가 여전히 여성을 상품화하고 선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토론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광고의 선정성 문제

기존 광고 중에서 성적대상물로서 여성을 선정성에 이용하는 기법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1. 쌍방울 「스캅달」광고(잡지)

이 속옷광고는 정장을 입고 사진기를 들이대고 있는 남자들 앞으로 거의 벗겨진 외투와 속옷만 입은 여자가 계단을 오르고 있다.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자체가 선정성을 띄기 쉬운 것이 여성용품이고 그중 속옷류의 광고는 여성의 신체노출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정장차림을 한 남자들앞에 속옷만 입은 여자는 눈요기감으로 보여진다. 또한 정장을 갖춰 입어야하

시정안돼 광고의 선정성

매스컴 모니터회

이번 모임에서는 TV나 잡지에서의 광고가 여전히 여성을 상품화하고 선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는 장소에서 속옷만 입은 여성은 비정상적이며 성적대상인 존재로 보인다.

2. 태창 「캘빈 클라인」광고(잡지)

① 스타킹 선전광고로 누드인 뒷모습과 보일듯한 젖가슴, 스타킹 속으로 엉덩이 선이 그대로 드러난 여성의 누워있는 모습이다. 외설잡지를 보는 것 같고 지나친 노출에 거부감이 생긴다.

② 캘빈 클라인의 속옷광고로 남성은 속옷을 입고 앉아있는 모습에 얼굴이 나와있고 침대에 걸터 앉은 여성은 얼굴이 나타나지 않은 채 속옷입은 신체의 모습만 보인다.

따라서 여성속옷의 광고는 남성속옷 광고에 비해 신체부위가 확대되어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부각시킨 느낌이다.

3. 빙과류 「미라클」광고(TV)

빙과류 선전인 이 광고는 해변에서의 여러장면들 중에 수영복 차림의 여성이 등장한다. 얼드려 모래사장엔 누워있는 이 여성은 카메라의 초점이 가슴에 맞춰져 시청자로 하여금 마치 가슴을 들여다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젊은이들이 해변에서 즐겁게 지내는 장면중에 아한 포즈의 여성을 클로즈업한 장면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흐리고 광고명을 기억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주 판매대상이 어린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여성을 선정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4. 맥슨전화기 광고(잡지)

이 광고는 벌거벗은 어린이들이 이사귀로 밀만 가린채 좌우양쪽에 서서 "인간감도"라는 말을 전해듣고 있다. 엄밀한 의미로 이 광고가 선정적이

라고는 할 수 없지만 천진한 유아들을 이용해 이사귀로 남·녀를 구별하여 성을 상품화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따라서 선전하고자 하는 의도에 적합한 광고로 대체했으면 한다.

5. OB 「씨그램진」광고(전철)

남녀모델의 얼굴 및 하반신은 잘려나간 채 상반신만 클로즈업 돼있는 광고인데 심지어 여자모델의 손이 남자의 와이셔츠 속으로 반쯤 들어간 모습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보기 민망한 광고다.

6. 유아복 「글레이유 0.8」광고(잡지)

동은 통상(주)에 의해 수입되는 유아복으로 광고전면에 붙어사용과 측면에 선전용품의 옷을 입고 있는 아이를 안고 배꼽아래까지 드러낸 나체의 여성이 서있다. 광고모델 또한 외국인이다. 이 광고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를 위한 광고인지가 의심스러울만큼 전면에서 걸쳐 외국어를 사용하고 외국모델이 등장한다. 이와함께 나체여성의 등장은 선전의 목적이 유아복 판매에 있음에도 무엇을 선전하고자 하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없게 한다.

*기타 문제점

1. 공익광고협의회 「우리집 밥상에는 대화가 반찬」(신문)

「우리집 밥상에는 대화가 반찬」이라는 문구에 밥상에 아버지와 아들이 가운데 앉고 양쪽 옆으로 어머니와 딸이 앉아있는 모습의 광고이다.

가족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익광고협의회의 의도는 높이 평가하지만 어머니보다도 남자로서의 아들이

더 중요한 존재로 부각되어 부자가 나란히 상석에 앉고 모녀는 각자 상 귀퉁이에 앉아 성차별적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2. 아놀드 파마(동일레나운)

어린이들이 바다가 보이는 식탁에서 콜라를 앞에 놓고 이야기하고 있다.

아놀드 파마가 주판매대상이 어린이가 아님에도 이와같은 광고에서 어린이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과 어린이가 어른같은 행동이나 소비를 한다는 점이 거부감을 주고 있다.

*TV프로그램

1. 톰방각하(5월7일)

미니시리즈 톰방각하는 기존의 농촌극인 전원극 형태에서 벗어나 땅투기와 관련한 농촌의 혼란상과 퇴폐 도시문물의 침투 등을 현실감 있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극적재미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해도 욕설이나 성표현에 대한 대사가 지나치게 많이 나타났다.

5월7일 춘회와 톰방각하의 침대연기 장면에서 춘회가 톰방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이 너무 길게 방영되어 보기에 민망했고 톰방의 목욕하는 장면도 자주 방영되었다.

쓸데없는 외설적인 장면은 극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점에 유의하길 바란다.

2. 그 여자(5월9일)

MBC의 새드라마로서 서정적인 장면처리와 실생활에 가까운 대사와 연기로 흥미진진한 드라마이다. 또한 두명의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입장에서 여성의 삶의 형

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며느리의 슬기로운 대처가 궁금해지는 드라마이다.

그러나 5월9일에는 여학생들이 총각·처녀 선생님의 관계를 소문내는 장면에서 여학생으로 분한 탤런트들이 교복만 입었지 질은 화장이 그대로 다보여서 보기에 어색해 전혀 학생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비록 단역배우일지라도 배역이나 배역에 맞는 분장 등에 세심한 배려를 바란다.

3. 아침을 달린다(4월19일)

금지된 춤이라고 불릴만큼 관능적인 랍바다춤을 10여분 간이나 시연을 하는가 하면 그 춤이 끝난 뒤에 사회자는 "이런 좋은 춤은 널리 보급이 되어야겠죠."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다리사자로 사람이 빠져 나온다는가 남자가 서로 부벼되는 모습들이 아침 시간에 보기에도 민망했는데 끝맺는 말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런 내용을 방영한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사회자로서도 춤의 내용을 파악하고 적절한 말로 끝마무리를 하는 준비자세가 요구된다.

4. 사랑해 당신

MBC의 새 아침드라마로서 아침에 상쾌하게 웃을 수 있게 진행되는 것이 돋보인다. 남녀가 만나 결혼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도 신경이 날카로워져 갈 싸우게 되는 것 등 현실과 흡사하고 연기자들의 연기력 또한 현실감을 더해준다.

밝고 상쾌한 아침 드라마가 되길 기대해 본다. ◆



조기홍 선생님

평생을 교육자로서 모든 것을 후진양성에 쏟아 넣으셨던 조기홍 선생님. 교육자로서 뿐만 아니라 본회 주택부장, 대한여학사협회 부회장, 범태평양여성협회 부회장 등 여성단체에 관재하시면서 여성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던 조기홍 선생님을 찾아뵈었다.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곳에 가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그곳에서 생활하시면서 느끼신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 아들 내외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자식이 없어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 식구참하러 갔다가 이번에 잠깐 다녀리 왔습니다. 제가 미국에 대해 느끼는 것은 미국은 200년동안 쌓아온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의 개성이 뚜렷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또 의무교육만 받은 사람으로부터 최고 학부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살고 있지만 그간 다져온 민주주의의 전통아래 질서를 중시하며 살고 있습니다. 안정되어 있는 미국에 비해 볼 때 우리 한국사회는 너무나 험악하고 무서운 분위기이고 변화도 지나칠 정도로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 미국사회에서 부럽게 생각되는 것은 완벽한 노후복지제도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서도 혼자 자립할 수 있을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을 해줍니다. 물론 국가의 경제능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상황이 많이 좋아졌지만 선생님께서 일본으로 공부하러 떠나실 당시인 1920년대에는 여자의 몸으로 유학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텐데…….

■ 아버지께서 일찍 문명하셔서 일본으로 유학가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하셨고, 저는 공부해보겠다는 생각에서 그 말씀에 따랐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일본으로 떠나고 나서

편히 보냈는가 보다 하고 후회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지요.

일본으로 가기 전 1년간 일본어학교인 제일고녀를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 다녔고, 일본으로 가서 동경 오쵸노미즈(女高師) 여자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곳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생활 용어를 잘 몰라 어려움이 많았었지요. 일본 사람들은 밥2그릇에 국1그릇이면 되는데 저는 밥이 2그릇이면 국도 2그릇을 먹어야하는데도 멀리 놓여있는 국을 1그릇 더 달라는 말을 못해 울며 겨자먹기로 있는대로 먹곤 했었습니다. 한동안은 꿀먹은 벼어리로 생활



을 했던 겁니다.

오쵸노미즈의 여자대학에는 4개의 과가 있어 처음에는 한 과에 한국인 학생이 2~3명정도씩 있었는데 졸업은 저 혼자 했습니다. 언어문제라든가 생활습관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탈락했었던 것이 아닌가 해요. 생활습관 차이의 일례로 한국사람들은 앉을 때 한쪽 무릎을 올리고 앉는 습관이 있는데 일본사람들은 그것을 예의에서 크게 벗어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은 일본인 선생이 저에게 다른 과의 한국인 학생 한명이 무릎을 꿇고 앉지 않고 한쪽 무릎을 들고 앉았는데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이니 그러지 말라고 충고해 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에게 한국에서는 복넓은 긴 치마를 입기 때문에 그렇게 앉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 무례한 행동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었더니 수긍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50여년간을 교육자로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셨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다면……

■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직후 광주에서 1년정도 교사생활을 하다가 진명여고 교사로 취임한 첫해에 맡았던 학생들과 지금도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졸업한지 얼마되지 않은 때라서 선생과 제자사이라고 해도 나이가 대개 3~4년 정도이고, 뒤늦게 공부하는 학생도 많아 저보다 나이가 오히려 많은 학생도 있었는데, 나이 어린 저를 깎듯이 선생으로 대접하면서 무척 따르고 좋아했었습니다.

칠판십이 다된 지금까지도 웬만한 친척보다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만나면 모두 즐거워하면서 지난 얘기로 꽃을 피우곤 합니다.



-이숙중 회장님과는 각별한 관계였었다고 하는데 그 분에 대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 제가 이숙중 선생님을 처음 만난 것은 일본 오쵸노미즈 대학에서였습니다. 선생님은 그곳에서 미술을 전공하셨지요. 그분이 나중에 활동하신 것으로 보아선 사회학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어요. 그분이 여성단체협의회에 거는 기대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성신학교 이사장을 지내시면서도 학교는 저에게 맡기다시피하고 창설 당시부터 깊은 애정을 갖고 당신 돈 써가면서 열성으로 여협을 성장시키려 하셨지요. 서울뿐만이 아니고 지방여성도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지방조직도 육성시키는 등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여협의 초창기 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여협에 관계하시는 분들 모두가 여협을 사랑방간이 생각했지요. 행사 때는 각 부서의 부장들은 집에서 음식

도 해오고 돈도 내놓고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모이곤 했었습니다. 별다른 의견충돌없이 계획을 함께 세우고 모두가 애정을 갖고 그것을 함께 추진해 나가곤 했었습니다.

-평소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생활신조가 있다면……

■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자기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가지입니다. 가정도 중요하고 학문도 중요하고 사회참여를 통한 기여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비해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데 어느 분야든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 인간으로서 교육자로서 거짓말 안하고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도 남이 보아서 고개를 수그릴 수 있게끔 행동하고자 했습니다. 또 나름대로 과학적인 생활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선배로서 후배 젊은이들에게 주신 말씀은……

■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갖고 책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신장을 통해 국력배양도 이룩되는 것이므로 자기교육으로 자신을 지켜나갔으면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 이미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주어진 분수 이외의 욕심 안내고 있는 것을 간수하면서 살고자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건강하게 살면서 부지런히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대담·정리:오혜란)

소비자 모니터 교육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

소비자 모니터의 역할과 올바른 태도

모니터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으로 모니터 자신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모니터를 한다면 그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다. 어떤 일을 택하여 접하게 될 때, 항상 타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고 판단해야 한다. 즉, 자기주장만 하지 말고, 남을 탓하는 일만 하지 말고, 내가 할 일과 도리를 찾아야 한다.

단체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그러므로 모니터의 제1조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모니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다음 5가지 원칙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활동해야만 올바른 모니터 활동을 할 수 있다.

1. 봉사
2. 사명감
3. 정확성
4. 용기와 발표력
5. 협동정신

우선 첫번째로 봉사정신이다. 봉사 활동을 하려면, 책임감을 갖고, 자기 희생을 해야 한다. 또한 부지런하여 가족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 항상 긴장하는 생활과 절제하는 생활이 몸에 배어야 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희생과 봉사정신보다는 자기의 취미와 성취감·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두번째는 사명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사명감은 자신이 하는 일에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때 얻어진다. 그러므로 취미와 적성에 맞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세번째는 정확성이다. 모니터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으로 모니터 자신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모니터를 한다면 그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다.

어떤 일을 택하여 접하게 될 때, 항상 타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고 판단해야 한다. 즉, 자기주장만 하지 말고, 남을 탓하는 일만 하지 말고, 내가 할 일과 도리를 찾아야 한다. 이와 함께 나는 나의 도리와 역할을 다했나를 스스로 질문하면서 자기 자신의 주관에 빠져선 안된다.

객관성이 없으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현실에 맞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염두에 두고 조사활동을 해야 한다.

다음은 모니터의 3대 요소다.

① 계획: 어떤 사건이나 종류, 품목 등을 6하 원칙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항상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실천: 대중성이 있고, 제도나 법으로 제정해서 많은 사람에게 독이 되도록 실천해야 한다.

③ 평가

a) 계획하고 실천하는 일을 항상 매

모하는 습관

b) 언제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감이나 의욕을 가져야 한다.

c) 상황에 따라 판단 처리하는 기능 훈련을 해야 한다.

d) 가정과 모니터활동을 구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네번째는 용기와 발표력이다. 용기란 의욕과 자신감에서 생기는 행위이며, 발표력이 있을 때 찾아지는 행위이다. 그러나 용기는 적절히 사용해야지 만용을 부리면 안된다. 자기의사표시를 정확히 하고 시기를 찾아서 적절히 해야 한다. 또한 언어와 발표력 훈련을 해야 한다.

다섯번째는 협동정신이다. 이것은 양보와 겸손의 결정체이다. 협동정신은 자기 분배역할을 충실히 이행했을 때 이루어진다. 또한 자기분배와 자기가 맡은 일을 올바르게 수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모니터는 다른 사람에게 인식하지 않고 타인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데 아량을 가져야 함을 덧붙여 강조하고자 한다. ♣

소비자 모니터 교육



최철 (공해추방운동연합 의장)

녹색운동과 환경보전

인간답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64년도 자동차대수는 14,600대였는데, 현재 1990년도엔 100만대로 70배나 증가했다. 이것은 1일 생산량이 20,000대 정도되는 숫자이다.

이러한 자동차의 증가가 바로 공해와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 지난 4월22일, 지구의 날 행사가 열렸는데 이는 지구의 환경오염을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행사였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기오염이 78년도엔 세계1위를 기록했고, 88년도엔 세계 3위로 나타났다.

아황산가스(SO₂)의 서울 대기오염의 1일 기준치는 0.15, 이것은 시청 앞 표시판에 매일 기록되고 있는데, 이는 행정적인 기준치를 말한다. 일본의 경우엔 1967년에 이미 아황산가스의 수치를 나타내는 전광판을 설치했는데 시시각각의 SO₂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아황산가스는 1PPM만 넘으면 목숨을 잃기 때문에 대기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공해 문제에 대한 조사를 보면, 한국부인회의 경우 서울시 주부 85%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전문가의 경우엔 70%,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7%로 나타났다.

우리가 많이 걸리는 호흡기 질환은 모두 공기에서 비롯된 것인데, 하루에 마시는 공기량이 10,000ℓ(무게론 13.6kg)라고 한다. 그런데 공기중에 있는 황(S)과 산소(O₂)가 결합해서 아황산가스가 되는데, 이는 우리 몸 속에 있는 물과 결합해서 황산이란 오염물질로 변하게 된다. 이러한 오염물질은 목이 칼칼하고 기침과 가래가 자주 일어나고, 심하면 폐암이나 폐수종으로까지 번지게 된다.

하루중 대기오염이 가장 심할 때는 아침공기로, 이는 저녁공기의 3배이상 오염되어 있다. 이러한 원인은 공기의 역전현상으로 야기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하천 수는 3,900개이다. 이러한 하천들이 현재 매우 심각한 상태로 오염되어 있어서 식수론 매우 부적합하다. 이의 원인을 보면, 상류지역에 있는 절에서 나오는 삼부, 댐, 세탁비누 등의 오염물질과 가축사육장에서 나오는 가축 배설물, 농약, 사료에 섞인 방부제 등이 상류지역의 심각한 오염원이 되고있다. 또한 골프

장의 설립으로 인해 잔디에 사용하는 농약과 공장폐수 등이 모두 복합되어서 우리의 하천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정수기에 대해서 잠시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수도물을 식수로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시점에서 각 가정에 정수기를 대부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현재 시판되고 있는 200가지의 정수기 성능이 믿을만한지, 주부들이 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매우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수기의 종류엔 필터, 이온, 역삼투압, 맥반석 등 여러가지 다양한 제품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의 올바른 사용과 정기적인 소독이 이루어져야 안전한 식수를 먹을 수 있다. 약수물도 29개의 성분조사를 해야 식수로서의 적법함을 알 수 있다.

요즘은 암환자의 발생율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암의 발생원인은 병든 식품을 먹는데 기인한다. 병든 식품이란 것은 1. 자연식품이 아닌 것, 2. 식품이 제철에 나오지 않는 것, 3. 자기고장에서 생산되는 식품이 아닌 것, 4. 가공식품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주위에서 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려면 우선 화학조미료, 맛이나 향이라고 쓰여진 식품, 라면 등을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결론적으로 공해문제는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각 가정에서는 우선 합성세제를 쓰지 말고, 가능한한 자연식품을 먹도록 노력해야만 하고 공해물질을 내지 않는 모범적인 기업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간답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

소비자 모니터 교육



안기회 (국제환경문제연구소 소장)

쓰레기 문제의 현황과 대책

우리의 몸과 자연(공기·물·토양)은 결국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졌다. 이는 곧 지구의 구조와 같다. 환경이 오염되어 더 이상 식물, 동물 등이 살 수 없으면 이는 인간에게 직접 연결된다. 결론적으로 지구를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선 환경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살아남지 못한다.

폐기물이란 말은 법적으로서인데, 이의 정의를 살펴보면 소유자가 버릴 의사 있을 때 폐기물이라 하는 것이다. 즉 가치를 상실하는 순간부터 폐기물이라 할 수 있다.

폐기물에는 일반폐기물과 특정산업폐기물이 있는데, 96%가 일반폐기물에 해당된다. 이의 종류에는 유기폐기물이 있는데, 이는 균이 번식할 수 있는 것이고, 무기폐기물은 생명이 없는 것을 말한다. 특정산업폐기물은 4%를 차지하는데 공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공정처리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일반폐기물의 발생량을 보면 서울만 해도 96만명이 현재 이상수용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폐기물매립장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땅을 덮고 쓰레기를 매립해야 메탄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영종도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인건비·도로설비 문제가 매우 어렵다. 2차대전 이전까지는 폐기물이 유익하게 사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후에는 TV, 라디오, 플라스틱, 비닐, 나일론 등과 같은 고형폐기물이 증가했다.

외국에선 폐기물을 매립하기 전에 반드시 위생처리해서 수집 → 운반 → 처

리 과정을 거친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유독물질을 그대로 매립해서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현재 쓰레기의 92~93%를 매립하고 있는데 스위스의 경우는 15% 정도밖에 안된다. 이러한 점을 본다면, 정부쪽에만 책임을 돌려서는 안되고 주부들의 운동이 필요하다. 폐기물의 자원화 운동을 주부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차원에서 쓰레기수집체계의 모순을 시정해야 하며 각 가정에서, 일부 동네에서부터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쓰레기 분리수거운동을 확산시켜야 한다.

둘째는 기업도 책임을 지고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건전지·장통 등에 대해 재수거 및 재활용에 앞장서야 한다.

세번째는 전국민의 운동으로 확산시켜야 하는데, 국민이 환경문제에 대해선 아직까지 모르는 점이 많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즉 환경문제 인식운동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참여운동은 지식보

다는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헌법 35조를 소비자들이 올바르게 인식해서 큰목소리로 이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그것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깨끗한 땅에서 살 권리를 말한다. 우리 몸을 100으로 볼 때, 75%가 물로 되어있다. 이는 육체의 7할이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있는 물이 얼마나 우리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잘 나타내준다. 또한 물의 45%가 공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심각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몸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우리의 몸과 자연(공기·물·토양)은 결국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졌다. 이는 곧 지구의 구조와 같다. 환경이 오염되어 더 이상 식물, 동물 등이 살 수 없으면 이는 인간에게 직접 연결된다. 결론적으로 지구를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선 환경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살아남지 못한다. ◆



유봉현 (서울 마케팅사연구소 연구원)

소비자 모니터 교육

사회 조사 방법

사회조사를 실시할 때 면접원들은 확신을 갖고 면접에 임해야 하며 설문내용을 연습하고 숙달해서 정확히 해야함이 가장 중요하다.

사회조사방법론이란 사회적 정보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같은 유형을 다시 조사해도 같거나 비슷한 결과가 나올 때 과학적, 객관적인 조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의 가구수는 대략 240만가구인데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사업을 한다면, 이중 1,000명 정도 표본을 추출·조사함으로써 240만 주부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다. 이것은 대표성에 있어서 신뢰성이 있다는 말이다. 기간 및 인원의 정확도를 위해선 1000부중 300부정도를 다시 재검증하면 된다. 대표성은 지역이나 연령층을 엄격하게 지정하면 대표성이 더욱 높아지는데 비용은 2~3%가 더 든다. 연령층 분포는 20대 19%, 30대 32%, 40대 25% 정도가 대략 정확하다.

그러면 사회조사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 연구목적(주제설정) - 조사하려고 하는 연구목적이 뚜렷해야 한다. 주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

2) 조사설계 - 설문내용을 만드는 일이다. 이것에는 지역·대상자 등이 선정되어야 한다.

3) 표본추출

① 무작위추출: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표본선정으로 이 방법을 쓰기엔 어려움이 많다.

② 할당추출: 연령과 특징을 할당해서 하는 것인데, 이 방법은 약 60% 정도로 이용된다. 국내기업에서 보다는 외국, 특히 유럽이나 미국쪽은 반드시 이런 할당추출시장조사를 하고 국내에 들어온다.

4) 자료수집

① 우편조사: 긴급하게 응답자의 반응을 얻고자 할 때 쓰이며 설문지내용이 간단하며 비용이 적게 든다. 성공률(재수집률)은 약 20~30% 정도다.

② 전화조사: 성공률이 60% 정도 안된다. 그러나 제일 신속하다. 자료수집이 매우 간편하지만 시간대를 잘 설정해야 한다. 단점은 설문을 자세히 조사할 수 없어 깊이있게 다루지 못하는 점이다.

③ 집단조사: 집단으로 응답자들을 모아서 하는 방법으로 장소를 잘 모색해야 한다.

④ 개별면접: 제일 선호하는 조사방법이다. 이 방법은 1, 2, 3의 모든 방법의 단점들을 다 커버해 주고, 데이터가 정확하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며, 면접원(모니터) 등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면접원들이 어떤 자세와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응답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면접연습을 반드시 하고, 다음날 소비자와의 응답을 체크한후 재교육시켜서 실제조사에 들어가야 오차나 오류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용모도 중요하며 인사성도 응답자의 반응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결론적으로 사회조사를 실시할 때 면접원들은 확신을 갖고 면접에 임해야 하며 설문내용을 연습하고 숙달해서 정확히 해야함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표본추출문제, 즉 모집단의 대표성문제와 면접원 문제들이 조사하고자 하는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 ◆

패션 디자이너

디자이너란 직업은 창조의 머리가 있어야하고 또한 그 못지 않게 집착력과 지구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허영적인 요소가 보이나 내면세계는 그와는 멀리 떨어진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면이 앞서야만 한다.

디자이너란 직업이 요즘은 많이 인식되어졌다고 생각되나 아직도 디자이너란 화려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디자이너는 '미'를 창조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나 화려하기 보다는 성실하며 그 반대의 편에 서야한다. "여성 디자이너!"

지금은 디자이너란 직업이 여성직종으로는 인기직종에 속하나 내가 학교를 졸업하던 60년대 후반만 해도 그 명칭이 흔치않고 인식되지 않았던 직업이다. 패션 디자이너이기 보다는 양장점 주인으로서 바느질쟁이 정도로 그 시대 사람들은 생각되었는가 보다.

디자이너라면 패션과 관련하여 생각하나 그동안의 시대적 변천과 사회적 발전으로 요즘은 모든 산업에 디자이너가 중요시되며 필요로 하는 직종이다. 모든 산업구조가 디자인이 좋지 않고는 경쟁을 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더구나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섬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므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직종이 패션산업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안운정 (주·사라, 알모스트 대표·
대한복식디자인협회 회장)

또한 디자이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지기도 하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는 디자이너란 직업을 화려하고 허영적인 직업으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디자이너를 지망하는 사람들조차도 잘못된 인식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디자이너란 직업은 창조의 머리가 있어야하고 또한 그 못지않게 집착력과 지구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허영적인 요소가 보이나 내면세계는 그와는 멀리 떨어진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면이 앞서야만 한다.

자신을 위한 시간보다는 일을 위한 시간이 더 많고 그 일이 자신보다는 상품개발 위주로 하여야 하며, 또한 창작성이 중요하나 개인 창조력의 평가보다는 실용성, 심미성, 유행성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아야 한다. 그러므로 대중 속에서 꽃피워야 하며 타겟에 맞게 기획을 하여야 한다.

개인의 기호에 맞게 한사람 한사람의 개성을 찾아 옷을 만들었던 맞춤복 시대의 디자이너들은 유행의 물결에 맞춰 많은 역할을 담당했으나 지금은 색상, 디자인, 소재개발과 그 계절의 기획력까지 담당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소비자의 사회심리학적 연구도 함께 병행하여 소비자의 만족, 불만족을 파악하려는 노력까지도 해야한다.

디자이너가 되는 길

디자이너란 분야도 여러가지가 있고 분야에 따라서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보는 견해에서 바람직한 길은 학교를 졸업하고 학원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실기를 1년 정도 배워서 실무에 접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생각한다. 그런 후 직장생활을 통해 기초 일들을 익힌 후 유학이든 그 다음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학교를 졸업한 후 유학을 마치고 일선에서 일을 접할 때는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하기 때문에 적응해 나가기 힘들 것 같다.

디자이너는 창조의 재능과 노력하는 만큼의 결실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일에 임하면 성공할 수 있다. 모든 분야의 일이 마찬가지이나 특히 디자인은 시간적 개념도 따르기 때문에 긴장과 스트레스도 받는다. 아무리 좋은 작품도 시기와 유행에 맞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디자이너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조할 재원이고, 전문 디자이너가 필요하므로 앞으로 계속 유망직종이 될 것이다.

더욱이 경쟁력이 강화되고 패션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특히 여성 직업으로서는 많은 관심과 인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이 많고 고된 직업이라는 인식을 안고 직업을 택해야 한다. 머리속엔 항상 디자인구성으로 복잡하고 직장에 들어서면 실제로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퇴근시간이나 집에 있을 때도 유행일이 정보를 받아들이어야 하며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생활양식, 개인적 능력, 사회 심리학적 특성까지도 연구해야 하는 험난하면서도 어려운 길이다. 또한 탁월한 '감각'과 타고난 '끼'가 있어야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직업인 동시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임하면 후회없는 직업이 되리라 믿는다. ♣



가정 간호 시대의 개막

가정간호란 개인 또는 가족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병원의 의뢰나 개인·가족의 요구에 따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가정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질병과 장애로부터 회복을 도모하고 개인과 가족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간호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가정간호라는 개념은 단순히 간호를 제공하는 장소가 가정이라는 점보다 간호의 대상이 가정 전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박정호 (대한간호협회 회장)

정부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환경 개선과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가정간호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정간호란 개인 또는 가족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병원의 의뢰나 개인·가족의 요구에 따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가정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질병과 장애로부터 회복을 도모하고 개인과 가족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간호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가정간호라는 개념은 단순히 간호를 제공하는 장소가 가정이라는 점보다 간호의 대상이 가정 전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정부가 밝힌 가정간호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지난 1월 가정간호사를 분야별 전문간호사 제도의 하나로 입법화한 데 이어, 금년부터 1년교육 과정의 가정간호사를 양성하고 91년부터는 일부 국공립병원 및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그 성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90년대 중에 본격적인 가정간호시대가 개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가정간호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간호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정간호사업의 필요성

우선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및 건강문제의 변화 측면에서 가정간호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달에 따라 1980년 당시 65.9세이던 평균수명이 오는 2,000년에는 72.6세로 연장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노인인구도 해마다 0.1%씩 증가, 2,000년에 이르면 전체인구의 6.2%인 2백 97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의 60% 이상이 한 가지 이상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노인인구의 병원이용률과 노인의료비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6, 70년대까지 주종을 이루던 각종 전염성 질환이 감소하는 대신 80년대 들어서는 악성신생물,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 성인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같은 성인병은 장기간의 치료를 요할 뿐 아니라 치료비도 많이 소요됨으로써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가정간호사업을 필요로 하는 두번째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사회환경의 변화 추세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전통적인 대가족제도가 붕괴되고 핵가족제도가 진전됨에 따라 가족 중에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환자를 돌볼 가족구성원이 부족해지고 있다.

특히 여성의 역할이 확대되고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여성들이 예전과 같이 가족간호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산업의 급속한 발달과 기계화·공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한 불구자나 만성직업병 환자에 대한 간호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민생활이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면서 신체적 질병 치료 못지 않게 정서적·정신적 안위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셋째, 급격히 변화하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환경이 무엇보다 가정간호사

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의료보험 확대 실시에 따른 보험적용인구의 증가 등으로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병원이용률이 늘어나고 입원기간도 길어지면서 병상부족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고가장비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의 변화, 의료산업 종사인력의 상대적인 보수증가 등으로 의료비의 상승폭도 매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변화추세에 대처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정책의 하나로 가정간호사업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2. 가정간호사업 내용

정부 계획에 의하면 일단 병원단위에 가정간호과를 설치하고 여기에 자격증을 소지한 가정간호사를 배치하여 가정간호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수는 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대

상환자에 대한 처치와 투약은 전문의사의 처방에 따르도록 했다.

이밖에 대상환자에 대한 사정 및 가정간호계획의 수립·집행·평가 등은 가정간호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환자와 건강문제를 가진 가정이 가정간호사업의 대상이 될 것이다.

- ①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정(당뇨병, 고혈압 등)
- ② 재활환자가 있는 가정(뇌손상, 척추손상, 교통사고에 의한 마비 등)
- ③ 수술후 조기퇴원 환자가 있는 가정
- ④ 산모 및 신생아가 있는 가정
- ⑤ 특수처치 대상자가 있는 가정(욕창치료, 인슐린 투여, 각종 주사제 투여)
- ⑥ 특수간호 대상자가 있는 가정(투브영양, 인공항문, 방광세척, 카테터 교환, 기타 특수기구 부착 등)
- ⑦ 암환자 및 임종환자가 있는 가정
- ⑧ 노인환자가 있는 가정



⑨ 심신장애자가 있는 가정(지체장애, 정신박약 등)

⑩ 기타 가족구성원의 건강문제로 인해 가족전체에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가정.

그리고 이와같은 가정간호사업 대상 환자에 대해 가정간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간호를 제공하게 된다.

- ① 의사처방에 따른 처치와 투약
- ② 상처소독 및 치료
- ③ 재활간호 및 운동요법
- ④ 활력증진 촉진
- ⑤ 인공영양, 방광세척, 인공항문 관리 및 카테터 교환
- ⑥ 만성질환 관리
- ⑦ 식이요법
- ⑧ 산전·산후 관리
- ⑨ 신생아 간호
- ⑩ 임종환자 간호
- ⑪ 기초환자 간호 시범 및 교육
- ⑫ 건강문제 상담 및 정보제공
- ⑬ 가족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 ⑭ 정신건강관리
- ⑮ 모자보건과 가족계획
- ⑯ 환자의뢰
- ⑰ 기타 필요한 간호제공

3. 가정간호사업의 기대효과

가정간호사업이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한 영역으로 제도화된 경우 정부 및 의료기관, 국민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부 입장에서는 가정간호사업을 통해 의료보험 확대에 따른 국민의 의료요구의 증대 및 환자의 병원 집중화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의료보험 제도의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증가추세에 있는 만성질환자 및 각종 성인병 환자, 심신장애자, 정신질환자, 노인환자들을 가정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회문제화를 예방할 수 있으며, 산업사회의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신체적 불균형 현상, 직업병,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불구환자 등 단기 입원치료를 해결될 수 없는 환자들도 가정간호를 통해 장기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다.

또한 모자보건·가족계획·성인병 예방 등 각종 정부보건사업을 가정간호사업과 연계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의료비 압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의료보험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국민 모두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입원환자가 불필요한 장기환자의 병원입원을 억제하고, 조기퇴원을 유도함으로써 병상회전율을 높이며 병원인력 및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무리한 시설확장 없이 조기 퇴원 환자에 대한 추후관리까지 병원에서 담당할 수 있어 병원수입이 증대되며 의료사업뿐 아니라 국가보건사업에도 의료기관이 참여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감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정간호를 이용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병원이용을 최소화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안정된 분위기의 가정에서 간호를 제공받음으로써 환자와 가족에게 심리적 만족감을 주고 빠른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자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에 대해서도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을 제공할 수 있어 건강문제의 조기발견은 물론 자가간호능력 배양과 가족들의 건강관리 증진을 도모할 수 있으며 병원 감염의 위험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달의 여성계동향

5월의 여성계는 몹시 분주했다. 가정의 달·청소년의 달인 5월을 맞아 여성계는 과소비·폐해향락에 대한 사회적 각성을 촉구하는 세미나·캠페인 등을 앞다퉈 벌이는 한편 신사업당상 등 훌륭한 어머니의 포상으로 여성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미부통령후보였던 제럴딘 페라로 여사를 비롯, 마리아 핀타실고 전 포르투갈 국무총리 등 굵직한 해외 여성정치인들이 서울을 다녀가기도 했다.

홍은희 (중앙일보 생활과학부 기자)

폐폐문화추방 의식화운동 활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 등 5개 직할시 여협과 연계하여 폐폐문화퇴치 캠페인을 벌여 이를 근절시킴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문화를 정착해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협은 이에 따라 6월 1일 서울YWCA중앙당에서 25개 회원단체 회원 2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폐폐문화추방행사를 마련, 기념강연을 들은 뒤 건의문을 채택하고 명동일대에서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이에 앞서 대한YWCA연합회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폐폐향락병을 시정하기 위해 「바른 삶 실천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하고 5월22~23일 서울 반도유스호스텔에서 바른 삶 실천대회를 열었다. 대한Y측은 폐폐향락병 퇴치운동으로 ▲저질문화추방하기 ▲마약·AIDS 추방하기 ▲인신매매 추방하기 등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한편 80년~90년 4월 현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부터 제재결정을 받은 음란도서는 모두 6백2종에 달하고 있으며, 대부분 무등록출판사에 의해 제작돼 길거리 가판대·만화대본업소·

우편·전화망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업체, 벌금형 선고 받아

모집·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기회를 주지않았다는 이유로 작년 서울지역여성대표자협의회로부터 고발당해 검찰에 의해 약식 기소됐던 (주)신도리코·동아제약·대한교육보험·대한생명보험 등 4개 회사가 5월26일 재판부로부터 각각 1백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실재를 인정한 것으로 그간 의문시돼왔던 이 법의 실효성이 다소나마 보장을 받은 셈이 됐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정착을 위해 계속적인 여성계의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사태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사례를 수집,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 저명 여성정치인 대한강연회 잇달아 열려

미국정치계에서의 여성파워를 보여 주는 상징적 존재인 제럴딘 페라로 전 미부통령후보가 평민당 초청으로 5월

15~18일 서울을 다녀간데 이어 전 포르투갈 국무총리인 마리아 데 루르데스 핀타실고여사가 22~28일 서울을 다녀갔다.

84년 미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면대일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지명돼 미 역사상 최초의 여성부통령후보라는 역사적 기록을 남긴 페라로여사는 선거 당시 존 F 케네디 전 미대통령에 버금갈 정도로 대중적 선풍을 일으켰던 장본인. 16일 오후 국회의원 대강당에서 기념강연회를 가졌는데, 모처럼만에 제 도권·비제도권 여성계인사들이 한자리에 나란히 참석,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서울에서 열린 제 8차 전직정부수반협의회(IAC) 총회 참석차 내한했던 핀타실고 여사는 86년 대중적 인기를 등에 업고 대통령선거에까지 출마했던 유럽정치계의 거물. 그는 28일 이화여대 정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갖기도 했는데 NGO(비정부기관) 운동으로 여성들을 '세계의 새로운 세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달의 여성계동향



백대문대학생방학캠페인

대한여학사협회, 창립40주년기념 패널토의 개최

여성단체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여학사협회는 5월9일 서울 미국공보원 강당에서 「건강한 환경」을 주제로 한 창립40주년 기념 패널토의를 개최했다. 이연숙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의에서 정용(연세대 교수·예방의학), 김명자(숙명여대 교수·화학), 최주섭(환경처 생활폐기물과장), 김명애(주부)씨 등 참가자들은 건강한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는 덜버리기의 생활화가 최선책이라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한편 이날 토의에서 대한여학사협회측은 ▲가전제품·가구 등 내구성이 큰 물품은 이웃에게 물려주기 ▲컵·도시락 등 일회용 용기사용을 자제하기 ▲자가용을 덜타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머리감을 때 샴푸 사용횟수 줄이기 ▲무스사용을 삼가하기 ▲청소할 때 먼지떨이 대신 물걸레 사용하기 ▲냉장고 음식을 반드시 줄여나가기 등의 실천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90 전국여성노동자대회 개최

해마다 5월을 여성노동의 평등 및 인권보장 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제25회를 맞은 올해는 「여성노동의 평등·발전과 모성평화」를 주제로 삼고 ▲탁아시설·육아휴직제 실시 등 모성보호를 위한 복지제도확충 ▲신체검진 등 여성노동자 권익증진과 보건활동 ▲기술사설 점검·개선 등을 산하 조직을 통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특히 노총은 최근 녹십자·피코·스미다·동서문화 등 위장·휴폐업 업체의 대부분이 피고용인의 80%가 여성노동자인 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중시, 부당노동행위 및 위장휴폐업 예방대책을 세울 것도 아울러 지시했다.

한편 노총은 5월30일 노총대강당에서 '90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열고 10년이상 근속한 여성조합원(제조업생산 분야는 5년이상)을 대상으로 모범여성노동자 20명을 표창했다. 모범여성노동자대상은 최을희씨(35·신동노조위원장)가 수상했으며, 공로상은 이상옥씨(28·평안철유노조)등 9명이, 노동부장관 표창은 김경숙씨(31·전자계

산소 지부) 등 5명이, 금년부터 새로 제정된 정무제2장관 표창에는 권춘배씨(46·주)향우산업지부) 등 5명이 각각 선정됐다.

BPW, 21세기 여성지도력과 기업정신 세미나 개최

자기사업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직업여성서울클럽은 23일 21세기 여성지도력과 기업정신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서울YWCA 중흥당에서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백명희 교수(이화여대·교육학)는 21세기의 기업정신은 ▲자유·개방·풍요를 지향하는 정신 ▲진실과 창의성이 내재돼 있는 적극적인 정신이라야한다고 규정하고 21세기에는 스포츠·오락·문화·복지 등의 요구가 커지고 이에 따라 여성들이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 따라서 앞으로 전문직 여성들은 국제사회를 무대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한편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앞장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당인 페라로 초청 강연회

한국부인회, 과외공부실태조사발표

과외금지조치가 해제되면서 열병처럼 과외가 번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부인회는 5월17일 대한변호사회관 강당에서 과외학습의 문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부인회측은 서울 중·고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과외공부실태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자의 24.8%가 과외공부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강북(15.7%)보다 강남(37%) 지역에서 더욱 과외공부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외비용은 1과목당 월20만원 이하가 68.8%로 대부분이었으나, 30~40만원 8.3%, 40만원 이상도 7.8%나 됐으며 심지어 유명 학원강사의 경우 1과목 1팀(1~4명)당 1백50만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외를 하고 있는 과목은 영어가 46.6%로 으뜸이고, 다음이 수학(43.6%), 중학생의 경우 과학·국어과목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과외지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과외시키는 학부모의 83.3%가 과외비용이 부담스럽다고 응답, 과외가 부모들의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의 실상과 대책 긴급대토론회 열어

여성노동자들의 임시적 고용이 늘어나고 위장 휴·폐업이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단체연합은 6월2일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여성노동자 고용불안정의 실상과 대책을 생각해 보는 긴급대토론회를 열어 주목을 끌었다. 마산 수출자유지역의 경우 88년 이래 8천6백명이나 감소했으며, 전국적으로 89년 2/4분기만에도 8백23개 업체가 휴·폐업을 함으로써 3만6천5백26명이 실직을 하게 됐다. 여연은 여성노동자들은 언제라도 가정에 돌아갈 수 있는 「산업예비군」으로 정책에 이용되고 있어 철폐해자군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해고나 감원이 된 대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은 23세 미만이라는 취업연령제한으로 심지어 유흥향락업소로 까지 빠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의에서는 고용보험제·실업보험제의 조기 실시로 생존권을 보장해야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디자이너 이신우씨, 아시아 디자이너 중 첫번째로 동경컬렉션에 진출 확정

디자이너 이신우씨가 아시아 디자이너 가운데 처음으로 '91 춘하 동경컬렉션에 참가하게 됐다.

동경컬렉션을 이끌고 있는 도쿄패션디자이너협회(CFD)는 오는 11월 동경에서 개최될 제12회 동경컬렉션에 이신우씨를 해외디자이너부문에 초청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파리·밀라노·뉴욕 컬렉션과 함께 세계 5대컬렉션의 하나로 꼽히는 동경컬렉션은 CFD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외디자이너를 초청하는데 여기에 선정된 디자이너는 앞으로 연2회의 동경컬렉션에 계속 참가할 수 있게 된다.



대한여학사협회의 창립40주년 기념 패널토의

여성 공무원, 고위직 진출 늘어 3급이상 일반직 13명

송영주 (한국일보 문화과학부 기자)

지금까지 여성공무원은 정식시험을 통해 임용되는 경우보다 특채나 별정직으로 임용된 후 일반직으로 자리를 얻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여성공무원의 대부분이 가정복지국 등 제한된 보직만을 맡아왔다.

그러나 국가고사를 통해 행정부에 진출하는 여성공무원이 늘고 있고, 각 여성단체들도 여성공무원수를 늘리기 위해 각종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어 「행정관료」로 발돋움하는 여성이 날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남자들의 독무대이던 공무원사회에서 여성들이 관리자로서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현재 3급 이상 일반직 여성공무원은 전국적으로 13명.

주양자 국립의료원장이 1급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3급에 김송자(노동부 부녀지도관), 김기업(보사부 가정복지국장), 김명숙(국립보건원 훈련부장), 신태희(서울시 가정복지국장), 이말선(부산시 가정복지국장), 전재희(부이사관·해외연수중) 등 6명이 포

진하고 있다. 의무직으로 국립의료원 과장들인 김재원(흉과외과), 안돈희(소아과), 손숙자(피부과), 황인순(치료방사선과), 박효숙(임상병리과), 김혜경(마취과) 씨도 3급 공무원이다.

정무2장관실 권영자 조정관과 인천 노동위원회위원장 이광원씨, 이남영 국립경주박물관장은 2급 상당 별정직이다.

전체 여성공무원 18만 1천83명(89년 12월말 현재) 중에서 상위직인 5급 이상은 2백69명이다. 미미한 숫자지만 83년 5급이상의 여성이 1백77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6년만에 1백여명이 늘어난 셈이다. 한편 5급상당 이상 별정직 여성공무원은 89년 12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1백57명. 이들이 바로 각 지방 시·도 가정복지국을 구성하고 있다.

「공무원 생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국장 자리에 오른 여성들은 그동안 부서배치·승진·연수기회 등에서의 불리함을 겪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인간관계에 힘쓰면서 「성의 차별」을 뛰어왔다.

87년 7월 국립의료원장에 임명된 주

양자씨(59)는 보통 의료부장(2급) 2~3년이면 맡게되는 의료원장직을 9년만에 맡았는데 도중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여러차례 들었으나 「이 자리가 내 개인의 자리이기애 앞서 여성전체의 자리」라고 생각하며 인내해 왔다고 말한다. 그는 의료원장이 된 후 국립병원으로는 최초로 한방의료부를 설치했고, 응급센터 설립과 의료원 이전 등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는 경북고, 서울여의전을 졸업한 이비인후과 의사다.

노동부 김송자 부녀지도관(50)은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같은 자리에 여자를 임명했을 경우 남자보다 낫다는 말을 들을만큼 열심히 일해야 하며 조직내에서의 인화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69년 총무처 인사국 주사(6급)로 출발, 80년 노동부 부녀소년과장을 거쳐 87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그는 전국에 근로청소년회관을 건립하고 서울·이리 등 주요공단에 여성 근로자 아파트를 건설하는 등 국적국적한 일을 추진해온 노동계의 일꾼이다. 고대 법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

노동부에서 지난 2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전재희씨(41)는 고시출신 첫 여성국장이다. 현재 미네소타대에서 연수중이며 그동안 부녀소년과장·재해보상과장·임금복지과장·공공훈련과장·훈련기획과장 등 핵심부서를 두루 거쳤다. 영남대 법정대 출신으로 우리나라에서 산재보험 법규의 고전으로 인정받고 있는 「산재보험법」의 저자이기도 하다.

노동부에는 2명의 국장외에 행정고시출신의 정현옥·하미용씨, 하위직에서 올라온 신명·이정남씨 등 4명의 사무관이 있다. 노동부에 이어 보사부도 최근 2명의 여성국장을 맞이했다.

전국 각시·도 가정복지국장을 관할, 여성공무원으로 가장 상징적인 자리인 보사부 가정복지국장으로 임명된 김기업씨(57)는 41세에 공무원으로 첫 출발, 순탄하게 승진의 길을 달려왔다. 74년 서울시 부녀사업관장(5급)으로 시작, 8년만에 부녀청소년과장(4급)으로 승진했고 다시 7년만에 정무2장관실 조정관(3급)으로 옮겨왔다. 전 변희남 국장이 정년퇴임한 후 4개월간 공석으로 남아 있을만큼 경쟁이 치열했던 가정복지국장에 앉게된 김기업씨는 「여성들이 정책 결정자리에 많이 기용되려면 남성과 동등하게 일하는 정도로는 안된다. 더 팍팍히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도전으로 성차별 장벽을 깨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대 사범대 출신으로 재학중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이번에 보사부에서 김기업씨와 함께 국장급인 국립의료원 훈련부장에 임명된 김명숙씨(49)는 주사로 시작, 한뼘 한뼘 바느질하듯 국장자리까지 올라왔다. 보사부 부녀복지과 계장으로 4년,

과장으로 12년 등 부녀복지과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사무관(5급)에서 서기관(4급)으로 승진하는 과정이 서기관에서 국장(3급)으로 올라가기보다 더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6개월마다 매겨지는 근무평점에서 여성들은 남성보다 낮은 점수를 받기 일쑤인데 이 점수를 통해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전북대 법학과, 이대 교육대학원을 나왔다. 보사부는 노동부보다 여성사무관이 숫적으로 많은 편, 행정직에 8명, 보건의직에 2명, 간호직에 1명씩, 모두 11명이다. 행시 1호인 전재희씨에 이어 행시 2호인 장옥주씨가 탁아담당계장으로 일하고 있다.

20여년이 넘는 공무원생활의 대부분을 서울시에서 보낸 신태희 가정복지국장(54)은 「남성사회에서 여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장 차별이 있더라도 급하게 투쟁적으로 나서서는 안된다. 남성과 경쟁하려면 물론 지식과 업무능력도 필요하나 그에 앞서 원만한 인격을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89년 서기관 10년만에 국장으로 승진한 그는 보사부 부녀계장·지도계장·서울시부녀사업관장·서울시청소년과장 등을 지냈다. 고대 법대 출신으로 노동부 김송자 국장의 4년 선배, 신국장을 「代母」로 하여 서울시에는 사무관 2명·서기관 3명이 각각 여성공무원으로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부산시 가정복지국장 이말선씨(58)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출근 부산시에서 여성회관장·시민회관장·보건사회국 부녀청소년과 과장으로 일해왔다.

그동안 우리나라 여성공무원들은 남성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 차츰

조건이 개선되고 있어 행정부를 향한 여성진출은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89년에 철폐된 공무원 임용시의 남녀성차별규정, 88년 대법원판례로 확정된 성차별정년제 폐지 등은 여성공무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지금까지 여성공무원은 정식시험을 통해 임용되는 경우보다 특채나 별정직으로 임용된 후 일반직으로 자리를 얻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여성공무원의 대부분이 가정복지국 등 제한된 보직만을 맡아왔다.

그러나 국가고사를 통해 행정부에 진출하는 여성공무원이 늘고 있고, 각 여성단체들도 여성공무원수를 늘리기 위해 각종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어 「행정관료」로 발돋움하는 여성이 날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임영신 초대상공부장관, 김활란 3대 공보처장, 박현숙 4대 무임소장관, 김옥길 24대 문교부장관, 김정래 20대 보사부장관, 조경희 초대 정무2장관, 김영정 2대 정무2장관, 이계순 3대 정무2장관 등 그동안 8명의 여성이 장관직에 올랐으나 그들 모두 행정부에서 실무를 익힌 사람들이 아니었다. 차관직에 오른 여성은 아직 없으나 이미 행정력을 인정받은 여성관료들이 야심적으로 뛰고있다. 교육받은 여성이 크게 늘어나고, 대부분의 여성이 직업을 원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무원 세계를 향한 여성들의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

(이 글은 1990년 5월 13일자 한국일보에서 전제된 것입니다.)



5·16 이후부터 유신시절까지 I

박은식 (자유기고가)

I. 경제 및 노동정책

정경이 유착한 경제 및 노동정책 아래 기업주들은 관의 일방적인 보호를 이용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면서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하였다. 반면에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이 동결된 상태에서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기업주의 횡포와 관의 탄압에 직면하여 기본 생존권을 지키는데도 힘에 겨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5.16은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산업화과정에 돌입하게 하는 분수령이 되었다. 1962년부터 정부주도하에 추진된 경제개발계획의 주요골자는 '노동집약적 수출중심의 발전전략'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원인 남아도는 노동력을 이용하는 길밖에 없다는 전제 아래 수립된 경제개발계획이다. 이러한 성장정책아래 섬유, 의류, 신발, 가발, 전자부품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집중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소요되는 노동력의 수요는 대부분 강제적 과잉인구상태에 있던 농촌노동력으로, 그것도 노임단가가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여성노동력으로 충당되었다. 이른바 농촌노동력의 산업노동력으로의 대거 전환이 정부주도하의 급속한 공업화과정에서 일어나게 되었으며, 이 가운데 중요한 몫을 여성근로자들이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여성근로자들은 주로 저임금과 단순노동력의 대상으로 간주됨으로써 후일 민주운동의 주축세력이 될 소지를 출발부터 안고 있었다고 하겠다.

'민족자본의 형성'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정부의 경제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즉, 대기업의 보호육성과 외자기업의 유치 보호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정책은 어느 정도의 국가적인 부가 축적되기까지 분배의 문제를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선성장 후분배'의 대전제위에서 추진되었으

로 노동문제를 필연적으로 수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은 처음부터 산업화의 주역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아예 제쳐놓은 상태에서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즉 대기업의 보호육성은 저임금정책과 노동자들의 불만을 봉쇄하기 위한 노동쟁의 억제정책을 토대로 추진되었다.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해서는 더 큰 특혜가 주어져 이를 외자기업에서는 노동쟁의권은 물론, 노동조합의 결성권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을 마련해 주었다.

노동자들의 사회·정치적 요구는 물론 분배의 요구는 위와 같은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들 제반요구들을 법적으로 유보내지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노동정책이 정부에 의해 마련되었다. 먼저, 제도권 노동운동의 주체인 노동조합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산업별노조체제로 개편, 중앙집권적이고 일원화된 체제로 바꾸었다. 원래 산업별노조체제는 같은 업종끼리 힘을 규합하여 기업주들의 횡포에 연대적으로 강력히 대처하려는 목적 아래 기업별노조체제의 취약성 및 단점을 보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서 선진국에서 많이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역이용될 경우는 노동자의 권익신장은 커녕 오히려 큰 피해를 노동자들에게 줄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간략히 설명하면 기업주 혹은 정부와 기업별노조 혹은 노동자의 중간에 위치하여 정부와 노동자, 혹은 기업주와 노동자간의 직접적인 충돌을 면하게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나 불만을 중간에서 와해시키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줄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정부와 기업주는 산업별노조 및 그 간부들을 통제 혹은 매수를 통해 잡고있기만 하면 노동조합운동에의 깊숙한 개입은 물론 체계적인 통제도 가능하며 따라서 웬만한 노동쟁의는 미연에 방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60~70년대에 실시된 산업별노조체제는 바로 이러한 약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한 노동조합정책이었다. 더구나 정부는 노동조합의 자체조직에까지 깊이 관여함으로써 상급단체인 총로와 산별노조들의 무력화 내지는 어용화를 조장하였다.

다음으로 공장새마을운동을 통해 가부장적 노사관계를 수립, 노동자들을 기업주들의 종속적인 지위에 놓는 노사정책을 실시하였다. 60~70년대 내내 노동자 및 노조간부들에게는 새마을교육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는 홍보활동으로서 '공장일은 내일처럼, 근로자는 가족처럼'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노동자를 아랫사람으로서 어른인 기업주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여야 하는 열등하고 종속적인 위치에 처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결과 노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임해야 할 노사교섭활동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1971년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가운데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3권을 전면 제한하고 각종의 노사문제를 관주도의 조정에 의하도록 하였다. 일체의 노동쟁의가 금지된 가운데 만일 노동쟁의가 발생할 경우 산업평화를 해치는 반 국가적 행위로 간주되어 경찰력으로서 강력히 저지되었다.

이와 같이 정경이 유착한 경제 및 노동정책 아래 기업주들은 관의 일방적인 보호를 이용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면서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하였다. 반면에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이 동결된 상태에서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기업주의 횡포와 관의 탄압에 직면하여 기본 생존권을 지키는데도 힘에 겨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II. 60~70년대 노동운동과 여성노동운동

1970년 11월13일에 일어난 '전태일 분신자살사건'은 정부의 탄압과 기업의 횡포에 의해 위축될대로 위축된 노동운동에 활기를 불어넣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해방이후, 가깝게는 급속한 공업화가 진행된 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사에 있어서 전태일 사건은 상징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먼저, 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운동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고도성장의 실적에 들떠 저변에 버려진 노동자들의 노고를 외면 내지는 무관심하게 대하던 사회 각계층의 노동자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며 일부 의식있는 지식인과 종교계, 그리고 사회단체들의 참여가 본격화되었다. 다음으로 전태일씨가 일하다 분신자살한 평화시장에 전태일씨의 어머니인 이소선 여사를 중심으로 청계피복노동조합이 결성되어 70년대에 자율적으로 전개된 민주운동의 주도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우리나라 노동운동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점이다.

전태일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노

노동운동은 이원화의 길로 치달게 되었다. 정부의 노동운동에 대한 법적규제 및 철저한 탄압정책으로 노총을 비롯한 산별노조 등 제도권 노조는 무력화 내지 어용화되어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사명과 기능을 거의 상실해버렸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힘을 결집하고 실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할 상부조직들이 정부 및 기업의 편에서 오히려 하부조직의 조합운동에 대한 억제력으로 작용하는 예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가 동일방직사건¹⁾이었다. 산별노조인 섬유노조는 단위노조인 동일방직지부에서 발생한 분규에 개입,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사와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사태를 수습코자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섬유노조 스스로 많은 조합원들을 희생시키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었다. 이러한 제도권노조들의 행태에 반해 민주노동운동의 주체들은 각기 처한 현장에서 근로조건 개선과 민주노조운동을 위해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투쟁, 70년대 노동운동의 명맥을 이루었다. 이러한 민주노동운동은 주로 여성노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이들의 처절한 투쟁과 희생은 실로 우리 시대의 아픔을 대변해 온 산역사가 아닐 수 없다.

이들 여성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진 70년대 민주노동운동의 운동방향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관의 일방적인 박해로 크게 위축되어있던 노동운동의 열악한 여건을 약화하여 제멋대로 임금을 체불하고 착취하는가 하면 부당해고를 시키는 등 이른바 생존권자제를 위협한 기업의



1972년에는 인천동일방직 지부와 부산 피복보세가공 공장에서 기존의 어용노조를 몰아내고 우리나라 운동사상 처음으로 여성지부장을 중심으로한 민주노조를 탄생시키는 크나큰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횡포에 대항하여 근로기준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요구하며 벌인 투쟁들을 들 수 있다. 기업주들의 황금기였던 이 시기에 중소기업은 차치하고라도 계속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던 대기업들조차 전업수당의 지급이라는 법정휴일제의 실시 등을 위반한 경우가 허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사태에 대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시정요구들은 종종 관의 탄압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지고는 하였다.

둘째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남성간부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어용노조를 민주화시키거나 민주노조를 결성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앞장섰던 민주노조운동을 들 수 있다. 출판노조의 인선사 유령노조와 이에 맞서 싸운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77년도 노동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었다. 출판노동조합이 앨범과 노트 등 문구품을 제조하는 회사인 인선사의 간부들과 결탁하여 조합원들이 참여는 커녕 전혀 알지도 못하는 노동조합을 만들어놓고 그 댓가로 회사로부터 일정액을 받은 그야말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돈으로 팔아먹은 사건이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파렴치한 행동을 규탄하고 이를 시정하여 조합원들의 노조를 결성케 해달라는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관과 결탁한 회사측의 끈질긴 저지 노력으로 결국은 무산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동일방직, 호남전기, 원풍모방, 반도상사 등 민주노동운동의 본산지에서는 민주노조들이 속속 들어서게 되었다. 특히 1972년에는 인천동일방직지부와 부산 피복보세가공 공장에서 기존의 어용노조를 몰아내고 우리나라 운동사상 처음으로 여성지부장을 중심으로한 민주노조를 탄생시키는 크나큰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여성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을 기초로한 민주노조투쟁은 결코 헛되지않아 점차적으로 여러 단위노조에서 여성지부장과 분회장이 배출되었다. 뿐만아니라 적지않은 기존 노조조직에서는 여성노동자들의 수와 힘을 의식하여 여성노동자들의 대표인 여성부장을 상근간부로서 임용,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를 여성간부가 다룰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에 이르렀다.

마지막으로 여성노동자 고유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 다시 말해서 진정한 의미의 여성노동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자이기 이전에 여성이기에 당하는 각종 부당하고 불이익한, 또한 불평등한 제도와 관례에 대해 자각하게 되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모성보호권을 -유급 생리휴가, 산전산후휴아를 둔 여성을 위한 수유시간의 보장 등 -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 여성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통쳐진 사업장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어있는 여성의 평생노동권 확보를 위한 자각과 투쟁이 개별적으로 혹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원풍모방노조, 콘트론타이타노조 등은 여성의 직장을 결혼 전에 잠시 거처가는 곳 정도로 인식하고있던 사용자들의 그릇된 사고를 노사교섭을 통해 바로잡아 '결혼·임신퇴직제도'를 폐지시키는 한편 기능의 유무 및 고저라든가 근속일수에 관계없이 하위직에만 치우쳐있는 여성 생산직 사원을 위해 승급·승진제도를 마련하는 등 여성노동자들의 평생노동권을 확보하는데 성공한 모범적인 노동조합들이었다.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남녀차별적인 사례는 남녀평등이 비교적 보장돼 있는 공무원사회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었다. 똑같이 공채를 거쳐 들어간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공무원들이 승진에서 빈번히 탈락되는 경우는 차치하고라도 일부 직종에 속한 여성공무원의 정년이 남성의 경우에 비해 15년이나 하향 조정돼있는 제도적인 모순이 엄연히 공무원법에 존재하고 있었다. 지난 89년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판결을 받은 김영희씨의 '여성차별정년 무효소송'²⁾은 당초 이와 같은 모순된 차별정년제도를 개선하려는 투쟁의 선상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교원들이 한 국전기통신공사로 이관되기전 재신부에 속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당시부터 노동조합 조직내 외식있는 여성간부들이 중심이 되어 남녀차별 정년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이를 노사교섭창구를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간부들이 종래 남성간부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용만 당하던 것과는 달리 여성노동자의 문제의식에 눈을 뜨고 그 이익을 위해 일하는 위치로까지 발전한 여성노동운동의 진일보한 면모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계속)

(주)

- 1) 전태일 분신자살사건과 그 영향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저서를 참고, 전태일기념관건립위원회편,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 서울: 돌베개 1983.
- 2) 동일방직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저서를 참고, 이태호, '불꽃이여 이 어둠을 밝히라' 서울: 풀빛 1984. 이종각, '우리 다시 서리라' 「현실과 전망」, 서울: 풀빛 1984.
- 3) 여성차별정년 무효소송 후원회편, '여성차별정년 소송기록집, 김영희사건 재판관 중심서', 서울: 일월서각

연극 「굿나잇 마더」

주인공의 비극적인 종말은
오히려 우리에게 위안을 준다

박금옥 (중앙일보 출판국 편집위원)

울부짖는 늙은 어머니를 버려둔 채 제시가 한 밤의 권총소리와 함께 생을 마감하는 이 연극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

한마디로 "생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자신만이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그의 이런 주장은 우리에게 절망보다는 오히려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자신의 부모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다. (연출 박정자)

어머니와 딸은 어떤 사이인가. 생물학적으로 딸은 어머니의 분신(分身). 한 시인이 노래했듯이 부모에게 자식은 '이것이아말로 나의 뱃속의 뼈, 살 속의 살'인 것이다.

그러나 정신신경학의 입장에서 보면 모녀관계는 이른바 엘렉트라 콤플렉스(Electra Complex)가 작용하는 관계. 그리스신화에서 아가멤논(Agamemnon)의 딸 엘렉트라라는 동생 오레스테스(Orestes)로 하여금 아버지를 죽게 한 원수 어머니와 그의 간부(姦夫)를 죽이게 했다.

이에 근거하여 딸이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배척하고 아버지를 따르는 심리적인 성향을 엘렉트라 콤플렉스라 한다. 즉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가장

근근한 애정과 미움이 뒤섞인, 인간의 힘으로는 도망갈 수도 풀을 수도 없는 사이이다.

지난 5월 한달동안 극단 사조가 현대예술극장에서 공연한 번역극 「굿나잇 마더」는 바로 애증이 뒤얽힌 풀을 해야 풀을 수 없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타인인 모녀관계의 한 전형성을 보여 주는 것이어서 감동스러운 것이었다.

미국 여류극작가 마사 노만 원작의 「굿나잇 마더」는 어머니역의 배우 박정자씨가 올해의 한국 백상예술대상을 받은 것을 기념하여 앙코르공연으로 무대에 오른 것. 박정자씨와 함께 딸역은 연운경씨가 맡았다.

연극의 무대는 미국의 한 작은 지방 도시. 과부가 된 늙은 어머니와 이혼

한 후 친정으로 돌아온 중년의 딸이 함께 사는 서민가정의 거실풍경에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거실 한쪽은 싱크대가 들어찬 부엌이고 가운데에는 소파, 탁자, 의자가 간결히 장식되어 있다. 밤 10시가 가까운 시각. 딸은 이것 저것 집안 일을 정리하다 어머니의 손톱손질을 해주겠다고 서두른다. 또 늙은 어머니에게 느닷없는 일인 폭탄선언을 한다. "자신은 곧 죽을 생각이다"고.

늙은 어머니는 놀라고 당황하고 분노하여 딸에게 으르렁거린다. "내가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느냐"며 한탄하며 애원하고 통곡한다. TV의 연속극·손톱손질·신문의 낱말맞추기·소파의 커버갈기 등 그를 둘러싼 일상적인 것에

대한 욕망과 애착으로 살아온 어머니 예전 딸이 도시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이다.

어머니는 죽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다그친다. 딸 제시(Jessie)는 대답한다. "...그냥 사는 게 재미없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구요. 너무 지쳐서 피곤하고 말이 상처입구 서럽구 땀가에 이용당했다는 생각뿐이에요."

어머니는 다시 묻는다. "뭘에 지쳤니?" "다, 여러가지구요." "다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글쎄요, 더 설명할 수 없네요" 이런 식으로 모녀의 대화는 촛점없이 허공을 맴돈다.

평범한 남편만나 아들 딸 낳아 키운 후 잡다한 일상적인 것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다분히 통속적인 어머니에 비

해, 딸 제시는 내성적이고 내면으로 침잠하는 타입이다.

제시가 처녀시절, 어머니는 보이 프렌드없는 딸을 위해 자기집을 수리할 때 눈여겨본 젊은 일꾼을 소개하여 결혼에 이르도록 했다. 딸은 결혼 후 아들 하나를 낳았다.

이웃부인과 정분이 나 제시와 이혼한 남편은 지금 그 부인과 결혼해 살고있고, 아들은 문제아로 학교를 떠난 후 가출해 버렸다. 이들 모녀는 가끔씩 찾아와 귀중품을 훔쳐 달아나는 아들을 시한폭탄처럼 생각하며 늘 조마조마해하며 살고있다.

어머니와는 달리 그를 둘러싼 잡다한 일상사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딸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반문한다. "무엇이 날 이 세상에 붙잡아둘 수 있을까. 내가 살아감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하고. "내가 뭘가를 좋아한다면, 아이스 푸딩이나 큰 프레이크나 뭐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만한 이유가 아닐까"라고 제시는 절규한다.

제시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붙잡을 게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가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자신에 대해 자기희생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용감히 죽음을 선택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너한테 잘못했나? 나는 너를 사랑했다."고 울부짖는 어머니를 향해 제시는 말한다. "엄마가 날 구해주길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알구만 있었으면 됐어요."

'안다는 것.' '이해한다는 것'은 한 인간이 타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애정이다. 우리는 모두가 서로 상대가 내 마음을 읽어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것이 역의치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이다. 비록 그것이 어머니와 딸의 관계라할지라도...

원제가 「나이트 마더」인 이 작품은 '82년 12월 초연되었고, '83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되어 큰 성공을 거뒀다. 이 작품으로 작가 마사 노만은 83년에 수잔 스미드 블랙 본상과 류리처상을 받았다.

마사 노만은 "나는 인간의 생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것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 상황, 인간관계라고 믿는다"고 말한다. 그러면 울부짖는 늙은 어머니를 버려둔 채 제시가 한밤의 권총소리와 함께 생을 마감하는 이 연극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

한마디로 "생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자신만이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그의 이런 주장은 우리에게 절망보다는 오히려 희망을 주는 것이다.

또한 여의치 못한 모녀관계로 인해 고통받고 자책하는 많은 여성들에게는 한가닥 위안도 줄 것이라 생각된다. 삶이란 워낙 부조리한 것이니까... ♣



TV연속극과 신문낱말맞추기를 즐기는 일상적인 늙은 어머니는 딸의 죽음에 대한 결심을 듣고 절규한다. "내가 무얼 잘못했느냐고..." (박정자, 연운경 출연)

퇴폐문화 추방캠페인 실시

향락산업의 번창과 음란출판물, 약물중독 등의 범람으로 우리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회에서는 5개 직할시 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퇴폐문화 추방캠페인」을 실시키로 하고 6월1일 서울에서 먼저 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본회 임원 및 회원단체장, 회원단체 회원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가진 이번 행사는 서울YWCA 4층 중강당에서 '퇴폐문화추방과 시민의 책임' - 황필호 교수(동국대), '음란출판물의 현황과 대책' - 권용철(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2부장)에 관한 강연을 듣고 결의문 및 건의문을 채택한 후 명동일대에서 가두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소비자 모니터 교육

본회에서는 소비자운동의 저변확대를

를 위해 5월23일 소비자모니터를 모집, 교육을 실시하였다. 신입 모니터 및 기존 모니터 등 40여명의 소비자 모니터 희망자가 참석한 가운데 본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교육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소비자 모니터의 역할과 올바른 태도 - 김천주(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
- ▲ 녹색운동과 환경보존 - 최열(공해추방운동연합 의장)
- ▲ 쓰레기 문제의 현황과 대책 - 안기희(국제환경문제연구소 소장)
- ▲ 사회조사방법 - 유봉현(서울마케팅서베이 연구원)

도봉산일대 쓰레기 수거 캠페인

본회 회원단체 회원 및 모니터 40여명은 5월28일 도봉산 유원지에서 환경보전운동의 일환으로 쓰레기 수거 캠페인을 벌였다.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은 일요일 다음날을 택해 도봉산계곡에 쌓여있던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수거했던 캠페인 참가자들은 우리의

자연이 쓰레기로 인해 파괴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꼈으며, 앞으로도 이런 활동에 적극 참가해 우리의 자연환경을 우리가 지켜나가야겠다고 입을 모았다.

노동상담 실무자 교육 참가희망자 접수

본회에서는 근로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88년부터 매년 노동상담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바, 금번 제3기 실무자 교육을 7월2~3일(1박 2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노조 여성 간부 및 직장여성근로자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국여성개발원 강의실에서 ▲노조내 여성조합원의 권리와 역할 ▲직장인으로서의 여성 ▲노동관계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이 교육에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본회 근로여성상담부(Tel: 796-4560)로 연락하면 된다.



우리들의 광장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 대한조산협회 ● 대한가독교여자절제회
-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 대한민국전통문화경미망인회 ●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 대한영양사회 ● 대한간호협회 ● 가톨릭여성연합회 ● 국제존타서울클럽
- 국제승공연합전국여성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제22회 신사임당의 날 기념행사 거행

현대 여성의 모범이 될 이상상을 세우고, 여성 본연의 올바른 도를 재정립하기 위해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서 매년 신사임당의 기일을 맞아 실시해 오고있는 신사임당의 날 기념행사가 올해로 22회째를 맞아 지난 5월 17일 경복궁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오전 10시, 등가대에서 본회 회원을 비롯해 여러 내빈, 참가자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승희 서울시지회 회장의 사회로 개회식을 갖고 시, 수필, 한글·한문 서예, 묵화, 지수, 생활예절 및 다례 부문 등에서 그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예능대회가 진행되었다.

중식이후 자리를 근정전으로 옮겨 올해의 사임당상인 조종숙 여사의 추대식이 본회 김관숙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어, 김천주 회장의 사임당

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 및 부군 김병욱씨의 인사말에 이어, 이 행사를 축하하는 국립국악원 무용단의 축하공연과 함께 사물놀이 뜬채들의 신명나는 공연도 배풀어졌다.

한편 제22회 신사임당의 날 기념 예능대회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거행되어 각 부문 영예의 얼굴들이 탄생되었으며, 이 행사에 대한 각계 각층의 관심과 회원들의 열의가 해마다 높아져 이날 행사에는 약2만여명의 많은 관객이 참관하였다.

제22기 사임당학당 개강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서는 지난 5월 28일 주부클럽, 강의실에서 제22기 사임당 학당을 개강하였다.

이번 교육기간은 6월22일까지 한달간이며, 본회 김천주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바른 자기화법을 통해 가정내에서 주부의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라고 당부하고 건전한 취미활동이나 학습활동으로 보다 나은 자기성장을 거듭하



우리들의 광장

며, 사치와 낭비를 배격하여 검소하고 자제하는 생활습성을 키우라고 덧붙였다.

강의내용은 현대여성의 사회역할, 가정경제와 주부의 역할, 생활예절, 신사업당의 생애와 예술세계, 가족법 개정과 여성의 권리 등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내용을 마련해놓고 있으며, 함께 국립묘지도 참배하고 우의를 다져 앞으로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기약하였다.

제11기 탁아모 수료식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서는 5월 30일 제11기 탁아모(베이비시터) 수료식을 가졌다.

전문직업 여성을 배출하고 바쁜 직장 여성들의 자녀를 돌보아줌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베이비시터 교육은 30세 이상, 고졸이상의 주부들로서 자녀를 키워본 경험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14일부터 석달동안 육아심리, 구연동화, 유아의 건강관리 및 예술교육, 성격형성, 놀이지도 등의 일정으

로 진행되었다.

대한조산협회

서울지부 제1차 보수교육 실시

대한조산협회 서울지부(지부장: 김명재)에서는 5월 21일 대한간호협회 강당에서 약 17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지역사회 보건개발을 위한 조산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90년도 제1차 조산사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조산사의 전문직이란?' (최연순: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장), '한국에 있어서 전통 출산과 유아 민족에 관한 연구' (백명자: 한양대학교 보건소장), '지역사회의 보건교육' (홍정혜: 서울직업간호대학 학장), '화생방 환자 처치 요령 교육' (박명자: 방송통신대학 교육 연구관) 등이었다.

하와이 의료연수회 실시

대한조산협회에서는 회원의 자질향

상과 조산사를 위한 워크샵 연수를 5월14일부터 24일까지(10박 11일간) 하와이 아시아 태평양 교류센터(하와이대학)에서 본회 안선아 이사 외 29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산전분만 교육을 받은 가족의 출산성에 대한 연구 및 분만교육의 발달
- 산전에 부부가 함께 분만준비를 하도록 하는 방법
- 미국 조산사의 교육제도 및 조직과 교과내용의 발전과정
- 임신의 진단 및 태아의 합병증에 대한 산전 검사법
- 임신에서 분만까지의 조산술의 발전
- 산전분만교육 및 출산사와 출산후의 병원처치에 대한 견학

본회 및 지부 행정실무자 연수회

본협회의 '90년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제1차 본회 및 지부 행정 실무자 연수회를 5월30일 본 협회 2층 회의실에서 이사, 지부장 및 실무자 약 40여명이 참석하여 '조산사업의 활성화 방안 모색' (홍여신: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과 '환경보존을 위한 생활수칙' (최열: 공해추방운동연합회 의장), '의료보험' (안선아: 의료보험 심의위원)에 관한 교육과 실무자를 위한 '행정문서처리절차' 등이 있었으며 각지부 상정안전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



대한조산협회 서울지부 제1차 보수교육

우리들의 광장



광주에서 개최된 생선묵요리강습·시식회 -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이사회 및 선교회 개최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에서는 5월10일 여귀옥 회장실에서 이사회 및 선교회를 갖고 잠언 31장에 나오는 성숙한 여인에 대한 성서적인 이해에 관한 강연을 김정주 박사로 부터 들었다.

안동지회에 교회건축 보조

5월11일 절제회 지회로 조직된 안동에 있는 소망교회에 교회건축보조금 100만원을 우송했다.

충절부 선서식

서울시지회는 5월14일 충절부 선서식을 가지고 절제회 유아원 자모들과 어린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절제회원들 앞에서 술, 담배, 마약의 해독을 깨우치고 자녀들을 성결하게 키울 것을 선서했다.

게 절제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린이 백일장을 개최하였다.

●5월30일 김정주 박사가 이화여고 개교 기념식에서 "이화를 빛낸 사람"들 중의 한명으로 수상을 받게 되었다.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새로운 닭고기요리 책자 발간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에서는 대한양계협회와 공동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전국닭고기요리 솜씨대회의 전년도(제5회) 입상작품을 수록한 '새로운 닭고기요리' 책자를 발간하였다.

최우수상인 '닭, 늑은호박탕'을 비롯하여 닭다리구이강정, 닭살국수튀김, 닭수제비와 닭편육, 닭살 말랭이 장아찌, 닭살은채, 닭불고기산적, 닭고기 콩비지탕, 닭고기 피자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자는 일반가정의 주부들이 직접 만들거나 향토음식인 점들이 특색

절제와 승리 특강 실시

절제회 사무총장 김정주 박사는 5월15일 2천여명 학생들에게 절제와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특강을 했다.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절제하는 생활을 할 때 청소년들이 스승들의 수고를 보답하는 훌륭한 인물들로 자랄 수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백일장 개최

서울시지회는 5월26일 어린이들에



충북여선교회에서의 계절수업요리 시식장면 -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우리들의 광장

있고 종전에 알고 있던 단순한 닭고기 찜, 탕, 구이 등의 요리에서 벗어나 우리 식단에 새로운 맛을 전해 주리라 본다.

이 책자는 일반인에게 배부하고 있으므로 100원 우표를 동봉하여 본회로 신청하면 된다.

110-130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86번지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6월중 식생활 강습회 일정안내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향상을 위한 식생활 강습회의 6월 일정이 아래와 같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

— 아 래 —

- 6월 8일(금) 14시30분
인천시 상공회의소 강당
- 6월 13일(수) 14시
대전시 중구 선화동 중앙국교
- 6월 19일(화) 14시
전북 고창군 고창국교
- 6월 22일(금) 14시
경기 성남시 여성복지회관

수산물 식량화를 위한 '계절수산물 요리강습 및 전시, 시식회' 성료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에서 수협중앙회 및 수산청의 후원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 식량화를 위한 식생활행사가 5월22일 충북여성회관, 5월23일 광주시 YWCA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강습대상은 해당지역의 일반여성, 단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 제30차 정기총회

체급식소 영양사, 조리사, 급식담당자 등이다.

5월22일 충북여성회관에서 개최된 수산물 강습회에는 계절수산물인 꽃게, 오징어, 갈치, 고등어, 미역을 이용하여 주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산물요리 35종이 소개되었다.

이날 영양강의를 담당한 청주대학교 김해자 교수는 "수산물 종류가 매우 많고 그 가격의 차이가 심하나 계절과 종류에 따라서 잘 선택할 때 질이 좋고 값싼 단백질 공급원으로 합당하다" 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5월23일 광주YWCA강당에서의 수산물 요리강습회에서는 생선묵에 대한 영양강의와 조리방법이 소개되었다.

조리시범에서 본회 왕준원 회장은 "생선묵은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의 편의성을 지닌 도시형 식생활에 적합한 단백질 식품이다" 고 강조하였다.

제철의 야채와 함께 생선묵근대밥, 생선묵산적, 생선묵 부추무침 등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각종 요리가 소개되었다.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

제30차 정기총회 개최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는 5월23일 오전11시 보훈처장 및 자매단체장, 회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에 앞서 오전 9시30분에는 제60차 이사 및 지부장연석회의가 열렸으며, 총회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보훈처장이 마련한 오찬에 참석하였다.

전문직업여성클럽한국연맹

21세기 여성지도력과 기업정신 세미나 개최

전문직업여성클럽한국연맹 서울클럽과 새서울클럽 공동주관으로 '21세기 여성 지도력과 기업정신'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5월23일 서울YWCA요우당에서 열렸다. 주제강연은 백명희 교수(이화여대 사범대학 학장)가 맡았으며,

우리들의 광장

전문관리직 여성을 위한 직업전문교육-김영화 박사(한국교육개발원 책임연구), 여성 전문직의 직업준비 교육-박덕규 박사(한국교육연구원 수석연구)의 강연이 있었다.

회원 및 일반인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던 이번 행사의 사회는 서울클럽의 오경자 부회장이 맡았다.

대한영양사회

영양사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대한영양사회에서는 영양사제도 개선을 위한 본회 차원의 정책수립을 위해 영양사제도, 면허제도, 영양사의 활용방안 및 사회적 지위 확립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지난 5월7일 여의도 라키금성빌딩에서 '영양사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회 임원과 한국영양학회 임원, 전국 전문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협의회 교수 등 13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영양사면허수급불균형과 관련된 여

러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교환이 약4시간 동안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 회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별도의 임원회의를 개최, 추후 본회 차원의 정책수립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대한간호협회

제2차 간호법 및 규정제정을 위한 워크숍 개최

ICN과 대한간호협회가 공동주최하고 WHO 아시아, 서태평양지역사무소, 영국해외개발공사에서 후원해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아시아와 서태평양지역 16개국 간협대표와 ICN, WHO관계자, 한국육서비 등 5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각 주제별 그룹토의 및 전체 토의로 진행되었다.

한편 첫날 열린 개회식에서 박정호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ICN 서울총회에 이어 국제규모의 워크숍이 서울에서 열리는데 대

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간호규정의 제정을 위한 한단계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간호협회(ICN) 김모임 회장은 격려사에서 「간호실제와 교육제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간호규정과 입법에 대해서 ICN에서도 큰 관심을 가져왔다」고 밝히고, 「지난해 9월 일본에서의 제1차 워크숍에 이어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계순 정무제2장관은 축사(대독)에서 모든 인류의 삶의 질 향상과 여성지위향상을 위해 세계의 간호사들이 적극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의 일정별 주요 토의내용은 ▲ 7일-각국사업보고, 간호구조와 조직 ▲ 8일-변화를 위한 전략모색, 전문직간호의 독립성과 통제, 전문직간호의 독립성 확인 ▲ 9일-조직적정의 역할놀이, 법률·규정의 성문화화를 위한 지침, 구성요소의 배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0일-간호입법화를 위한 구조형성, 각국의 제2단계사업소개 및 사업전개 ▲ 11일-제2단계 사업목표 구조형성, 평가 등이 있었다.

가톨릭여성연합회

좋은 비디오 보기 세미나

가톨릭여성연합회는 올바른 비디오 문화의 정착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5월28일 한국여성개발원 대강당에서 좋은 비디오 보기 세미나를 개최하였



편집후기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향락·퇴폐문화를 추방하려는 움직임이 각계에서 일고 있습니다. 향락과 퇴폐의 원인은 먼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내 주변에도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의 퇴치를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호에는 퇴폐문화추방을 위해 본회가 실시한 캠페인 내용을 특집으로 수록하였습니다. 각자의 주변에서부터 향락·퇴폐의 요소를 뿌리뽑는데 모두가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월간여성 • 1990년 6월호 통권 275호
(매월 10일 발행)

● 발행 :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발행인 : 김경오

편집인 : 김관래

인쇄처 : 코리아 해럴드

사진식자 : 한라7(株)

발행일자 : 1990년 6월 10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7가

40-427, 428

☎ 793-5196, 794-4560,

796-4560, 797-5778

Fax : 796-4995

● 편집 : 출판공보위원회

위원장 : 김연주

위원 : 김효자 / 박금옥 / 박영혜 / 박용옥 /

신동식 / 오종자 / 최장섭

담당 : 오혜란

「여성」구독안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계 의견수렴을 통한 여성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비롯한 회원단체의 사업소개 및 국내외의 여성계 동향, 전반적인 사회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여성」의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793-5196, 794-4560

고급양념 맛이 진하게 우리나라요!

“고급양념 감치미, 쇠고기가 4 배 들어있어
국물맛이 한결 진해요”

“고급양념이라 느끼하지 않아요.”
“쇠고기맛이 진해요.” “사용이 간편해요.”
“영기지도 눅눅해지지도 않던데요.”
한번이라도 써보신 주부님들은 다시
감치미를 즐겨 찾습니다.
감치미는 어떤 국물, 어떤 찌개음식에
사용해도 쇠고기국물맛을 제대로
내주기 때문이죠.

국, 찌개, 탕... 국물음식의 재맛은
이제 감치미로 즐기세요.



주식미원
회사